

# Style 1 조선일보

MARCH 2019  
vol.186





18



10

Style



TOD'S

표지재 등장한 제품은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토즈(Tod's)에서 2019 S/S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D 스타일링 백, 최상급 소재로 소재로 토트 또는 슬더백 두 가지 버전으로 사용 가능하다. 스몰과 미디엄, 라지 3가지 사이즈로 선보이는데 화이트, 옐로, 오펜지, 블랙 등 다양한 컬러와 소재의 조합으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3438-6008



24



06

- 10 **ART DE VIVRE** "산업이 없는 삶은 메미른 불모지이고, 예술이 결여된 산업은 아관이다." 존철살인의 대가로 통하는 세계적인 문호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말이다. 빅토리아 시대 유미주의 전도사로 일세를 풍미한 작가다운 말인데, 그가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1854년은 마침 예술과 산업을 유달리 영리하게 엮어온 한 명품 브랜드가 탄생한 해이기도 하다. 당시 니콜레옹 3세의 부인 요제피 황후의 사랑을 받으며 파리 최고의 패커(packer)로 활약했던 30대의 왕실 상인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연 트렁크 제작 상점 루이 비통(Louis Vuitton)이 바로 그 브랜드다. 간판 브랜드 루이 비통을 내세운 LVMH 그룹의 예술 경영은 요즘 비즈니스계 화두의 하나인 '예술화의 좋은 예로 꼽힌다.
- 12 **SECRET GARDEN** 꽃과 나비, 팬더와 고슴도치가 모여 있는 봄의 정원으로 놀러 오세요.
- 14 **EXCEPTIONAL VALUE** 장인의 섬세한 손길과 혁신적인 워치메이킹 기술이 빛어낸 아티스틱 워치 컬렉션.
- 16 **BE MY BAG** 스타일과 취향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가방. 봄 여름 시즌 유행의 궤도를 순환하는 '신상' 백을 소개한다.
- 18 **2019 SIHH** 워치메이커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공개하는 국제고급시계박람회 SIHH. (스타일 조선일보)는 올해 세계 시계 시장을 선도할 주요 브랜드들의 새로운 시계 Best 3를 정리했다.
- 24 **NEW SPRING, NEW LOOKS** 프레시한 매력으로 무장한 2019 S/S 뉴욕 컬렉션.
- 32 **BE A GENTLEMAN** 특별한 날 혹은 일상생활에서 보다 완벽한 룩을 연출하고 싶은 당신에게 제안하는 스페셜 슈트 스타일링 가이드 4.
- 33 **MY SWEETEST TIME** 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행복으로 놀라움을 선사하는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리처드 밀이 정의하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은 어떤 모습일까?'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시계, 봉봉(Bonbon) 컬렉션을 만나보자.
- 34 **HAUTE CREAM**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다는 궁극의 럭셔리 크림. 최상의 원료와 최고의 기술력을 담아 선보이는 매력적인 인생 크림 7.
- 35 **FOR AGELESS BEAUTY** 피부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싶다면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크레마 베라를 주목할 것. 피부의 불로장생을 위해 강인한 생령력을 지닌 불로초의 효능을 담았다.
- 36 **OIL OBSESSION** 피부를 오염시키고 건조하게 만드는 미세 먼지와 번덕스러운 봄 날씨에 꼭 필요한 페이스 오일.
- 37 **THE SPARKLE EFFECT** 2019년 뷰티 트렌드는 만났던 듯 아닌 듯한 자연스럽고 깨끗한 피부 표현, AQ 스카케어 성분을 함유해 고가의 기초 제품으로 케어받은 듯한 광채 리프팅 효과를 주는 데코르테 파운테이션을 소개한다.



"BEAUTY LIES IN THE DETAILS OF THE GRANDEST STRUCTURES, AND THE FINEST." | ORA ITO, CREATOR OF SHAPES,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PATRIMONY.

# Style 조선일보

Issue.186 March 2019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민욱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민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VACHERON CONSTANTIN** | ONE OF NOT MANY.  
 GENÈVE

**Jewel PETAL**  
**ATTRACTION**  
 은은한 꽃향기를 머금은 작고 앙증맞은 플라워 모티브 주얼리.



(유튜버) 강한 생명력을 지닌 담쟁이 잎사귀 모티브가 두 개의 손가락을 유려하게 감싸는 화이트 골드 리드 파피 더블 링 2천만원대 **부세온**. 이블리아로 꽃을 뜻하는 피오레와 영어로 영원을 의미하는 포아베를 결합한 피오레비 컬렉션의 화이트 골드 브로치 1천9백만원대 **불가리**, 동양에서 지성, 순수, 부의 상징으로 여겨온 수련을 형상화한 미니 로터스 팬던트 화이트 골드 네크라스 9백40만원대 **반올리프 아펠**. 정교하고 탈스로운 두 송이 장미 모티브를 장식한 핑크 골드 로즈 팬던트 네크라스 3백90만원대 **파피에**, 옐로 골드 소재의 하트 모양 꽃양모 이블리인장작인 플라워 모티브 프라볼 0 어빙 스톤 1천9백만원대 **반올리프 아펠**, 에디터 **이혜미**



**Fashion FUNNY MINI**

이번 시즌 가방 트렌드는 '보다 작게, 보다 재미있게, 유행물 들기 좋은 사랑스러운 마이크로 미니 백 5.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재미있는 컬러 조합의 기하학적 무늬 파우치 백 20X15cm 3백만원 **에르메스**. 부드럽고 입체적인 텍스처의 FF 모티브 핑크 컬러 미니 바게트 백 19X11.5cm 3백75만원 **버넬라**. 트윙클 재질 기증인 앵글 스타일을 적용한 견고한 큐브 모양의 미니 배너티 마케트 백 12X12X12cm 7백만원대 **모아나**. 탈착되는 스트랩을 더해 크로스보디로 연출 가능한 귀여운 상어 모티브 마이크로 백 16.5X12cm 1백10만원 **토즈**. 매릴린한 실버 컬러 미크로 네크라스 레더 미니 백 14X11cm 1백30만원 **마우유유**, 에디터 **이혜미**



**Beauty SAVE YOUR HAIR**  
 무엇보다 두피와 모발이 건강해야 한다. 탈모 방지를 위한 기능성 샴푸.

(유튜버) '리네트'의 **포타사 샴푸** 모발 뿌리에 영양분이 들어 두피와 모근 강화에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 샴푸. 모든 모발 타입에 적합하다(200ml 2만16천원). **보벌 얼그레이 레디나 스킨케어 샴푸** 첫 요를 우려 알갱이 원료를 추출하고 9가지 이상의 자연 원료와 블렌딩했다. 두피에 주는 자극을 줄이고 유해 활성 산소를 억제해 노화를 늦춘다(300g 2만18천원). **픽사빙 이보마 스트렝스 샴푸** 가늘고 힘 있는 모발을 건강하고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고 모발 손상을 방지해준다(500ml 4만2천원). **리우쉬 월로우버크 트리트먼트 샴푸** 각질 제거 기능이 있어 약해진 두피와 가늘어진 모발을 튼튼하게 해주는 샴푸(200ml 2만4천원). **이슬 볼류마이징 샴푸** 가늘고 얇고 게다가 자라는 머리카락이 고민이라면 적극 추천한다. 두피 청결은 물론 모근 사외의 모발을 분리하고 머리카락이 서로 엉키지 않게 하는 효과까지 있다(500ml 6만15천원). **이베디안 인비티 이드벤트스™ 엑스플로러링 샴푸** 17년간의 연구와 5년간의 개발로 완성한 인삼과 강화 발효 함유가 두피 탄력을 강화하고 알라 성분을 함유한 포폴라는 모발을 두껍고 풍성하게 보이게 한다(200ml 3만7천원). **리쉬 리베 샴푸** 해초 즙을 주성분으로 과일 효소와 허브 오일을 배합했다. 손상된 머리카락을 보호하고 더러워진 두피를 상쾌하게 씻어 두피와 모발에 휴식을 준다(500g 6만2천원). 에디터 **장려윤**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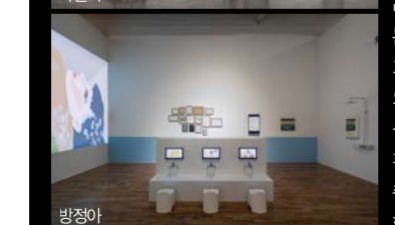
**Focus 2019년, 드디어 서울, 샤넬**

그동안 많은 이들이 궁금했을 소식. 3월 22일, 샤넬의 첫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가 긴 준비 끝에 드디어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낸다. 창당동에 위치한 총면적 1천8백30㎡에 달하는 7층 규모 스토어는 오랜 시간 샤넬과 협업해온 세계적인 건축가 피터 마리노가 작업했다. 외관은 시대를 초월한 고급스럽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담았고, 내부는 창업자 가브리엘 샤넬의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우아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1층부터 3층까지는 레디투웨어, 핸드백, 슈즈, 커스텀 주얼리, 아이웨어, 향수, 워치, 파인 주얼리 등 다채로운 제품 라인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고, 4층은 프라이빗 라셀션 룸, 5층과 6층 테라스는 특별 행사 및 전시회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구성했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블랙, 화이트, 아이보리 컬러 팔레트로 채운 공간 곳곳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 점 한 점 신중하게 선택한 고품품 기구와 예술 작품들. 전설적인 프랑스 인테리어 디자이너 장미셸 프랑크의 데이 베드, 크리스토퍼 콜의 아누스 라이트를 비롯해 안드레 & 마셀 할렛, 안토니 피아사, 아그네스 마틴, 앤드류 로드 등 존경받는 현대 예술 작가의 작품 수십 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첫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정체성에 맞추어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 이불, 강익중, 이우환의 작품도 곳곳에 설치해 부티크와 긴밀한 조화를 이룬다.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과 함께 매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컬렉션은 갈 라가멜트가 지난 10월 파리에서 상상 속의 해변을 배경으로 그린 2019 S/S 컬렉션. 발가락을 긴지 랩하는 모래와 파도가 떠오르는 목가적인 디자인의 레디투웨어, 액세서리 컬렉션 등을 샤넬의 정산이 고스란히 녹아든 공간에서 특별한 서비스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에디터 **이혜미**



**Exhibition 부산시립미술관의 삼백 전시, 〈빈북과 차이: 시간에 관하여〉, 〈영정야〉 등**

불꽃이 피어날 때는 계절이면 더 많은 이들의 발길을 기본 좋게 이끄는 부산. 이 인기 만점 항구 도시에 들른다면 미술관 구경도 관측은 선택일 듯하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 한국과 일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는 〈빈북과 차이: 시간에 관하여〉를 비롯해 세 가지 서로 다른 색깔의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다. 3월 15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는 과거, 현재, 미래, 생사, 생성과 소멸 등 '시간'이라는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다양한 형식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다. 모두 7인의 작가가 참여했는데, 숫자를 LED로 다채롭게 표현해낸 일본의 저명한 작가 미야자마 타츠오의 'Three time train'이 아시아 최초로 공개됐으며, 솟을 천장에 매다는 방식의 회화적인 조각으로 유명한 박성기의 'An Aggregate, 2019'는 작가 커리어에서 최대 규모의 설치 작품이라 눈길을 끈다. 나프탈렌, 소금 같은 재료를 활용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 해체되는 조각을 선보여온 미야자마 아이코의 작품 세계도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다.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촬영한 다양한 영상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재현한 오윤석의 영상 플라주, 공기 입력의 변화에 따라 형상이 달라지는 이병호의 실리온 조각, 투명 레진으로 존재와 시간이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이진영의 벽면 기둥한 작품, 강렬한 색채를 모티브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는 조은필의 설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미술관 감성회 관장은 "인간에게 숙명처럼 주어지는 시간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이름'의 삶을 재치 있게 풀어낸 부산 출신 작가 방정아의 작품 1백2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개인전이 6월 9일까지, 평생 의미 있는 미술품 가치를 실천해온 갤러리스트의 기호와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기증 작품전 〈신옥진 컬렉션〉이 5월 19일까지 열렸다. 에디터 **고성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삶



**Church's**  
 English shoes



# for her Selection

실용적인 소재, 활동적인 디자인, 익살스러운 디테일까지. 이번 시즌 감각적인 에슬레저 룩이 대세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귀여운 아이 모티프를 장식한 카드 지갑 19만원 안아 힌드마치.

37x22mm 크기의 스틸 케이스에 핑크 다이얼, 교체 가능한 그레이 더블 스트랩을 더한 티파니 이스트 웨스트 워치 4백64만원 티파니.

러플과 벨트 장식으로 경쾌한 무드를 강조한 저지스커트 1백44만원 프라다.

모던한 블랙 & 화이트 램스킨 글러브 1백10만원대 샤넬.

하루를 상쾌하게 나쁘고 싶을 정도로 새겨 넣은 핑크 & 화이트 컬러. 1백10만원 프루이비롱.

미우미우 02-541-7443 디올 02-513-0300 안아 힌드마치 02-3479-1529  
 펜디 02-2056-9023 베르사체 02-2118-6126 소니아 리키엘 02-546-7764  
 미크 제이름스 02-3446-8883 티파니 02-547-9488 토즈 02-3438-6008 프라다 02-3442-1830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샤넬 080-200-2700 디스케이드 02-6905-3678  
 루이비통 02-3432-1854 롱샴 02-2143-7136 무이 02-3446-8074

아우 포켓으로 실용성을 높인 FF 로고 캔버스 소재 벨트 백 1백7만원대 펜디.

플러워 모티프 스타트 아이링 가격 미정 베르사체.

재활용 타월린 소재로 만든 컬러풀한 스트라이프 토트백 가격 미정 소니아 리키엘.

백 램으로 연출하면 앙상한 구린 PVC 카링 19만원 이디비 by 뫼.

샤넬비스트 유행형 에티어 아이미 어시스트 상원

드로 스트링 후드들 대한 오버사이즈 레더 재킷 2백88만원 롱샴.

www.brunellocucinelli.com



BRUNELLO CUCINELLI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전문점 /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대구신세계점, 센텀시티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판교점, 대구점, 부산점  
 갤러리아백화점 EAST /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부산본점 / AK플라자 분당점

LANCÔME  
PARIS

수천 송이 장미에 담긴, 강인한 피부 생명력.



NEW  
ABSOLUE CREAM

새롭게 태어난 듯, 눈에 보이는 놀라운 피부 변화

남성적인 카누플라주 패턴 위에 화려한 꽃과 잎의 보러를 더한 나일론 소재 아노락 1백70만원 발매노.

스니커즈와 샌들을 조합한 독특한 하이브리드 슈즈 1백15만원 구찌.

두가지 다른 컬러의 부트라운7 조를 이어 만든 아이얼리스. 레드 브레이슬릿 29만15천원 토티.

멜론 스트라이프로 포인팅을 장식한 프란트 토트백 1백14만원 보스 맨.

샌드 블라스트 처리한 티타늄 케이스 두께가 5.15mm에 불과한 오토 피니시드 오토매틱 워치 1천7백만원대 불가리.

레이스인 디테일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일라르'인 클라리다오 스니커즈가 각각 마징 에르메네제르 19만원대 발매노.

오묘한 블루 그라데이션 컬러의 카프 스킨 크로스보디 백 가격 미정 에르메스.

스웨이드 재이 멋스러운 아치수 프린트 립 19만원대 맥게이지.

과장된 곡선형의 더블 브리지와 가로로 긴 사각형 렌즈가 유니크한 선글라스 40만원대 프라다 바이 룩스타카.

비비드한 오렌지 컬러의 메탈 체인 장식을 더한 모노그램 캔버스 벨트 1백13만원 루이 비통.

브라스 위에 다채로운 컬러 크리스탈을 장식한 브레이슬릿 각각 1백55만원 모두 다음 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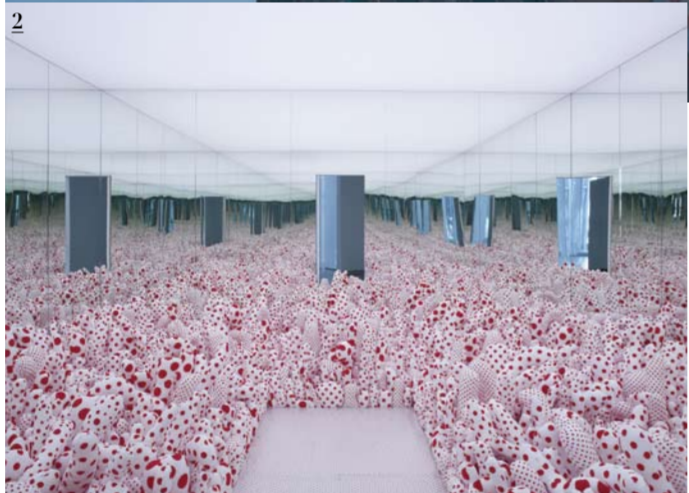
드로스트링, 버클 벨트, 컬러 포인팅 등으로 재미를 준 하이킹 백팩 2백19만원대 자방시.

발렌티노 02-2015-4653 불가리 02-2056-0172 구찌 02-1577-1921 토즈 02-3438-6008 에르메네제르 02-518-0285 보스 맨 02-515-4088 에르메스 02-542-6622 다음 올름 02-513-3232 룩스타카 02-3442-1830 프레드 02-514-3721 루이 비통 02-3432-1854 자방시 02-6370-4099 에르노 02-541-7235 맥게이지 02-3213-2365

# Art de Vivre

“산업이 없는 삶은 메마른 불모지이고, 예술이 결여된 산업은 아반입니다.” 촌철살인의 대가로 통하는 세계적인 문호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말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유타주의 전도사로 일세를 풍미한 작가다운 말인데, 그가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1854년은 마침 예술과 산업을 유달리 영리하게 엮어온 한 명품 브랜드가 탄생한 해이기도 하다. 당시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사랑을 받으며 파리 최고의 팩커(packer)로 활약했던 30대의 왕실 상인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연 트렁크 제작 상점 ‘루이 비통(Louis Vuitton)’이 바로 그 브랜드다. 간판 브랜드 루이 비통을 내세운 LVMH 그룹의 예술 경영은 요즘 비즈니스계 화두의 하나인 ‘예술화의 좋은 예로 꼽힌다.

‘산업업’이라 불릴 만큼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았던 나폴레옹 3세가 집권한 19세기 중반 프랑스 제2제정 시절은 상대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렸기에 명품 브랜드들이 싹트고 꽃피울 만했다. 그중 휴양지로 떠나는 여행이나 궁정의 화려한 연회 등이 발달하면서 그 시대의 혁신 아이템이었던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트렁크로 인기를 끌었던 루이 비통(Louis Vuitton)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대상을 타면서 국제적 명성까지 꺾차게 된다. 그로부터 1세기라는 시간이 흐른 1987년, 유서 깊은 ‘베종’ 브랜드로서의 자부심을 꺾기지 지켜온 루이 비통은 삼페인과 코냐크를 제조하는 모엠헤네시와 합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거대 럭셔리 기업인 LVMH 그룹으로 거듭났다.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이끄는 LVMH는 루이 비통을 비롯해 디올, 지방시, 펜디, 테그호이어, 쇼페, 돔 페리뇽 등 패션, 시계·보석, 주류를 아우르는 공룡 기업으로 구쥘,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 부쉐론 등의 명품 브랜드를 다수 거느린 또 다른 프랑스 기업인 케링 그룹과 함께 럭셔리 업계의 쌍두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아니 어쩌면 자연스럽게도(장인 정신 충만한 공예 예술과 전통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밀착 관계를 생각할 때) 이 두 그룹의 수장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아트 컬렉터이자 현대미술 애호가로도 유명하다. 이 중 파리 오페라 하우스나 베르사유궁, 루브르 박물관, 기메 국립 동양박물관 등 문화 예술 기관의 복원이나 소장품 수집을 후원해온 아르노 회장은 그룹의 초기 시절부터 재단 설립에도 뜻을 두고 미술관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그 결실이 2014년 가을 파리에 모습을 드러낸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Fondation Louis Vuitton)이다. ‘현대미술에 헌정하는’ 그룹 차원의 재단으로 만들어졌지만 ‘루이 비통’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르노 회장의 고문인 장-폴 클라브리(Jean-Paul Clavier)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술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브랜드여서”라고 답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21세기 비즈니스계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예술화(artification)’의 선두 주자로 루이 비통을 꼽는다. 이는 브랜드 기원과 성장 과정, 창업자의 취향, 사회 공헌 정신에 뿌리를 둔 DNA의 발로일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나가는 고도의 브랜드 전략이 낳은 산물일까? 아마도 이 둘을 잘 엮어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예술’일지 모르겠다. 제품 협업에 문화 예술 후원이든 미술 프로젝트든 ‘아트’를 훌륭하게 활용하고 애정해온 루이 비통 그룹(LVMH)의 사례를 들여다본다.



## 아트 컬래버레이션의 제왕

사실 동시대 미술이든 르네상스 미술이든 통합 음악이든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패션 디자이너는 많다. 크리스티앙 디올은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살바도르 달리, 알렉산더 칼더, 알베르트 자코메티 등과 일한 이력도 있었다. 워낙 예술에서 창조적 영감을 많이 받았던 그의 패션 세계와 인상주의 사조의 연관성을 유려하게 펼쳐낸 <임프레션 디올> 같은 전시가 열리기도 했다(2013년). 물론 럭셔리아트는 아트가 아니다. 예술과는 달리 럭셔리 제품에는 시공간적인 유일성,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이 결여돼 있고 사용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창조성과 미학’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폴 클라브리 고문의 주장처럼 루이 비통은 동시대 예술가들과의 협업에서 단연 두드러진 발자취를 뽐내온 브랜드다. 인상파 화가들과의 친분 관계부터 20세기에는 호안 미로, 파카소 등의 대가들과 인연을 맺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솔 르윗, 리처드 프린스, 스테판 스프라우스, 우고 룬디노네 등의 아티스트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중 아트 협업 역사에 남을 성공작으로 꼽히는 ‘제품’을 꼽자면, 마크 제이콥스가 수석 디자이너로 있던 시절

(1997~2013)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대 초반 빗꽃 문양, 만화 캐릭터인 포켓몬 등 자신만의 팝 감성이 돋보이는 방식으로 가방 등의 액세서리는 물론 쇼인도에도 반영한 일본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Takashi Murakami)와의 협업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인기의 정점에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던 루이 비통 브랜드가 일본 소비자들로부터 호소력을 되찾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호



루이비통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루이비통



박 문양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쿠사마 야요이(Yayoi Kusama)와의 ‘뽕뽕이 무늬’ 가방 시리즈도 빼놓을 수 없는 컬래버레이션 히트작이다.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일은 이 세계의 민감성과 긴장감을 표현하고, 현재와 미래의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패션 디자이너도 브랜드라는 틀 안에서 이 시대의 민감한 요소와 이슈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션은 예술이 아니지만,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강하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장-폴 클라브리 고문의 설명이다. 아마도 더 정확한 분석은 ‘예술은 럭셔리에 차별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지 않을까 싶다. 혹자는 동시대 아티스트들과의 좋은 협업은 브랜드로 하여금 전통에 입각한 영리한 빛을 발산하면서도 ‘현재’라는 유행의 흥분을 느끼게 하는 외출타기의 묘미라고 해석했다.

## 몰입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형 콘텐츠’

예술은 이처럼 동시대의 신선한 감성을 끌어들이면서 정통성을 기반으로 영원성(timeless)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이중적인 면모도 반영하는, 다시 말해 상호 모순적이지만 럭셔리 브랜드가 존속하려면 꼭 필요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보충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과 럭셔리의 호미통하고 성공적인 만남이 결코 쉬운 건 아니다. 아예 브랜드의 아트 협업은 지겨울 정도로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아티스트의 독창성이 조화된 균형을 이뤄내는 건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술의 오라(aura)도 탄탄한 전통과 확고한 창조성, 우월한 브랜드 파워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돋보이게 마련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아트’를 내세우지만 이 같은 고도의 아케팅(artketing)은 소수의 브랜드들에게 허락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도 일회성인 제품 협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틀의 시스템과 차별성을 띄는 브랜드여야만 생태계에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다. 럭셔리 경영 분야의 구루로 여겨지는 장 노엘 캐퍼러 교수는 브랜드의 예술화 단계를 나누면서 특정 아티스트를 후원하는 수준에서 인하우스 차원의 협업, 브랜드가 주최하는 전시, 미술상, 재단 설립, 아트 컬렉션, 기업 차원의 아트 프로그램 펀딩 등의 순으로 폭을

넓혀감에 따라 그 영향력도 커진다고 진단했다.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으로 빛이 난 플래그십 매장, 아카이브 전시 공간 등 ‘브랜드 공간’이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일 테다. 루이 비통의 경우 일본 오모테산도에 건축가 아오키 준(Aoki Jun)이 설계한 플래그십 매장, 2005년 파리 샹젤리제에 에릭 칼슨(Eric Carlson)이 설계하고 피터 마리오(Peter Marino)가 인테리어를 맡아 재단장한 메종 자제도 그렇지만 워낙 압도적인 전시 콘텐츠를 생산해 냈기 때문이다. 루이 비통의 제약적 기개와 어울리는 블록버스터 전시와 조성진 콘서트, 아트 토크, 공연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 덕분에 개관 이래 무려 5백만 명이 넘는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인기 관광지 파리답게 상냥수는 외국인 관람객이라고. 이 중 아시아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던 ‘시츠킨 컬렉션’을 2016년 가을 처음으로 선보인 <현대미술의 아이콘 - 시츠킨 컬렉션>전은 1백20여 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세기 초 파란만장한 삶을 산 러시아 컬렉터 세르게이 시츠킨(Sergei Shchukin)이 소장했던 근현대미술의 진수를 담은 전시였다. 현재 열리고 있는 <코롤드 컬렉션: 인상주의에 대한 시선도 흥미로운 전시다. 런던 시민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코롤드 갤러리(Courtauld Gallery)가 소장한 윌리엄 터너 같은 영국 거장을 위시해 마네, 르누아르, 드가 등 기라성 같은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 1백여 점이 전시되고 있는데, 저명한 기업가이자 미술 애호가였던 사무엘 코롤드의 소장품이 파리에서 선보이는 건 60여 년 만이라고. 압도적인 컬렉션과 블록버스터급 전시에도 엇갈리는 시선이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과 규모의 미술 후원이란 차별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건 물론이고 ‘메디치’가문의 부활이라 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아트는 경계를 넘나드는 ‘유니버설(universal)’ 언어다. 보다 많은 동시대 아티스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이들의 영혼에 파고들 수 있다는 얘기가. 궁극적으로는 브랜드에 긍정적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을 테고 말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럭셔리 브랜드와 예술의 공생적 유대 관계는 더 끈끈하고 단단해지려하는 점이다. <고성연

숙성의 유리 돛단배 같은 미술관, 파리리빙을 위한 선물 브랜드의 예술성을 드러낼 수 있고 메세나로서의 가능성도 하는 공간형 콘텐츠의 끝판왕은 역시 미술관일 터다. 이 글의 서두에 언급했듯이 LVMH 아르노 회장 역시 1990년대 초부터 미술관을 염두에 뒀다. 브랜드 공간에서도 예술성은 추구했지만 순수하게 현대미술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미술관 건립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미였다. 아르노 회장은 발바로 구겐하임의 신뢰를 이뤄낸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의 건축 세계에 매료됐고, 2006년에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 프랭크 게리는 특유의 차별된 개성을 드러내면서도 이 아름다운 수도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해치지 않도록 지나친 파괴는 자제된 건축물을 파리 시쪽 골짜기 불로뉴 숲속에



1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파리의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 프랑스 미술가 다니엘 뷔랭(Daniel Buren)이 색을 입힌 설치 작품 ‘빛의 관측소(Observatory of Light)’, 2016년 작. Clwan Baan / Fondation Louis Vuitton 2 현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신소장품’ 전(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컬렉션: 회화에 대한 시선)에 전시된 쿠사마 야요이(Yayoi Kusama)의 설치 작품 ‘Infinity Mirror Room’(1965/2013). 3 엘스워스 켈리(Elsworth Kelly), ‘White Dark Blue’(1968). ©Elsworth Kelly Foundation. Photo courtesy Elsworth Kelly Studio. ‘신소장품’전의 전시 작품. 4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전시 <코롤드 컬렉션: 인상주의에 대한 시선>에 선보인 폴 세잔(Paul Cézanne)의 카드놀이하는 두 사람(The Card Players)(1892~1896). Oil on canvas. 런던 코롤드 갤러리. 5 2018년 5월 남프랑스에 위치한 마그 재단 미술관에서 열린 루이 비통 크로스 패션쇼. 6 ‘신소장품’ 전시의 관람 풍경. 7 1910년 루이 비통 제품 카탈로그의 속표지를 장식했던 프랑스 일라스트레이터의 드로잉. 8 루이 비통의 예술, 건축, 패션 야정들 다룬 책(Louis Vuitton - Art, Fashion and Architecture). 9 2006년 파리 샹젤리제의 에스파스 루이 비통에서 열린 <이콘(Icons)> 전시에서 선보였던 실비 플루리(Sylvie Fleury)의 작품. 제임스 테렐, 반 시게루 등 9명의 아티스트들이 루이 비통 기원을 나눔의 방식으로 해석해 재조한 프로젝트였다.

# secret Garden

꽃과 나비, 팬더와 고슴도치가 모여 있는 봄의 정원으로 놀러 오세요.  
 photographed by park jac yong



(위부터) 사벨 화인 주얼리 레일 드 카멜리아 커브 링 독특하게 표현한 꽃잎에 시간이 차지도 번치 않는 궁극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18K 옐로 골드로 섬세하게 꽃을 만들고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링. 1천만원대, 문의 080-200-2700 반클리프 아펠 참 엑스트라오다네리 에스페란소 워치 끊임없이 새로운 상상을 만들어내는 시간에 대한 경의를 담아 계절과 함께 올라가는 시간의 영원성을 형상화한 시계. 다이얼 위에는 옐로 사파이어와 구릿. 다이아몬드로 시적인 그림을 그렸다. 케이스 지름 25mm, 6천4백만원대, 문의 00798-852-16123 카르띠에 리투스 드 카르띠에 링 눈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산악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18K 핑크 골드로 만든 조각 작품과도 같은 대담한 실루엣의 산악정을 다이아몬드와 스피넬로 꽃 모티프로 장식했다. 2천2백만원대, 문의 1566-7277 타사키 레일 링 18K 화이트 골드에 핑크 사파이어, 옐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꽃잎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반지가 완성되었다. 4백40만원대, 02-3461-5558 부쉐론 한스 헤르그 브레이슬릿 안쪽 속에서 길을 밝혀준다는 행운의 상징 고슴도치를 부쉐론만의 금 세공 기술로 형상화한 한스 칼렉션. 그중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은 빛을 반사하는 미러 효과를 취 생기 넘치는 반짝임을 자랑했다. 오프한 코는 블랙 사파이어를, 눈은 루비를 세팅했다. 5천만원대, 문의 02-3479-6028 티파니 레이퍼 플라워 컬렉션 희소한 다이아몬드와 탄자나이트 등 티파니의 레가시 정스톤을 플라워님에 세팅했다. 아이리스 꽃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장인 정신과 디자인 우수성을 보여주는 제품이다. 1천7백32만원대, 문의 02-547-9488 불가리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을 위해 더 여성미를 담아 유려한 곡선과 다양한 정스톤을 접목시킨 컬렉션.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 에피사이트, 루벨라이트, 토파즈, 페라이트, 투르말린 등을 세팅했다. 2천5백만원대, 문의 02-2066-0170 카르띠에 팬더 드 카르띠에 링 이상 팬더가 카르띠에를 만나 사랑스럽거나 때로는 장난스러운 애락을 불러와 감동할 궁정 에너지를 발산한다. 팬더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링으로 18K 옐로 골드에는 눈은 에메랄드, 코는 오탁스를 세팅했다. 4천1백만원대, 쇼케 호텐시아 에덴 비트윈 더 핑거 링 수국을 모티프로 한 호텐시아 에덴 컬렉션은 조세핀 황후와 그녀의 딸이자 내일란드의 여왕이었던 호르텐스 드 보헤미안을 기리는 컬렉션. 18K 핑크 골드에 타카이트, 8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풍부하고 입체적인 꽃잎을 탄생시켰다. 1천만원대, 문의 02-3442-3359 에디터 장리운

©2018 ISSEY MIYAKE INC.



issey Miyake.com

ISSEY MIYAKE



# exceptional Value

장인의 섬세한 손길과 혁신적인 위치메이킹 기술이  
 빚어낸 손목 위의 작은 예술 작품. 아름답고 진귀한  
 아티스틱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반클리프 아펠 레디아** 아펠 주니어 **블랑 포에틱 컴플리케이션** 남자가 하늘 높이 연을 띄우며 소망을 비는 모습을 형상화한 상징적인 다이얼이 아름답다.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아펠 아티팩트에 위치한 디스크가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회전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하늘을 보여준다. 사진 속 다이얼은 작은 다이아몬드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표현한 것으로 자개 조각 구름 위로 카타린 연이 우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케이스 지름 38mm 1억8천만원대, 문의 00798-852-16123 **소피드 LUC 우루시** 알폰스 장통 꽃잎 공예 7점인 우루시 마가에 분야 의 장인 기법로 마스무라가 제작한 다이얼은 역동적인 활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동양적 미학에서 신비롭다. 초박형 로즈 골드 케이스 안에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L.U.C 칼리버 96.17-L 을 탑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90 **카르띠에 토크워 워치** 금반이라도 다이얼 밖으로 날아오를 듯 생동감 넘치는 영무세 모터바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영롱한 자개 플레이트를 아 주 얇게 지른 뒤 투명도와 질감을 고려해 선택하고 섬세한 인그레이빙 모터바 위에 이어 붙였다. 덕분에 사실적인 그라데이션과 부피감, 깊이가 돋보인다. 상리베 에-우-엘 7점으로 영무세 의 노란 도가바리(머리털), 까만 눈과 부리를 표현했고 배젤에는 두 줄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화려함을 강조했다. 카르띠에 매뉴팩처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 430MC로 구 동한다. 1억1천7백만원대, 문의 1566-7277 **에르메스 슬림 데르메스 사바나 뎀스** 극도로 정교하고 사실적인 마-어치 페인팅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 지름 39.5mm 의 새하얀 천연 마더오브펄 다이얼 위에 다채로운 컬러로 자연 속 동물과 식물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자사 무브먼트 H1950으로 구동하며 4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가격 미정. 문의 02-546-3543 **디올 타임피스 디올 그랑 밤 미스 디올** 디올 패션하우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무도회에서 춤을 추는 여성이 이브닝드레스 자락을 형상화한 시계. 다이얼 위에서 회전 하는 꽃잎 모양의 로터는 로즈 골드 소재를 오픈워크 처리한 뒤 반투명 세라믹을 덧댄 것으로 중앙에 크고 작은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움직임에 따라 눈부시게 빛난다. 디올 인베르 세 11 1/2 오토매틱 칼리버를 탑재했으며 케이스 지름은 36mm다. 가격 미정. 문의 02-513-0300 **에디터 아메리**

01/AL/2018 04/18



issey Miyake.com

ISSEY MIYAKE

©2018 ISSEY MIYAKE INC.



**New Logo**  
 로고 장식은 광택한 가봉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리카도르 티시를 새로운 수장으로 맞이한 버버리는 낯선한 'TB' 로고가 들어간 새로운 백을 선보였고, 발렌티노는 V 로고를 재해석해 안티크 브라스 소재로 마감한 장식의 브이링 백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우부터) 송이자와 버릴로가죽 소재 브이링 백 24X19X16cm 3백10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니**, 송이자가죽 소재 스몰 사이즈 TB 백 21X6X16cm 2백75만원 **버버리**.



**Belt Bag**  
 손바닥만 한 크기의 가방을 허리에 벨트처럼 두르는 벨트 백이 유행에도 유행, 크로스로드도 열 수 있도록 탈착되는 긴 스트랩이 함께 달려 있다. 모두 18X10cm 1백35만원 **지형시**.



Publicis Etchison



# be my Bag

스타일과 취향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가방.  
 봄 여름 시즌 유행의 궤도를 순환하는 '신상' 백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lee yong in*



**Classic Tote**  
 역시 클래식은 클래식이다. 톱 핸들을 장식한 클래식 백은 어떠한 유행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킨다. 유행에도 다양한 크기의 토트백이 시즌조차림 쏟아져 나왔다. (우부터) 시미아는 가죽 소재의 시도나에 백 29X20.5cm 4백42만원 **프라다**. 울스빗 장식의 미디엄 사이즈 토트백 27X22cmX10cm 3백90만원 **구찌**.



**Iconic Returns**  
 2000년대 초 유행했던 '잇 백'의 원조들이 귀환했다. 펜다는 비게트를, 디올은 새들백을, 프라다는 니업론 백을 새롭게 선보인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새로운 세대에겐 신선함을 준다. (왼쪽부터) 엠브로이도 장식의 코튼 소재 비게트 백 26X14cm 3백75만원 **펜디**, 오블리크 자수 장식 코튼 소재 새들백 25.5X20X6.5cm 3백50만원 **디올**. 객원 에디터 **남지현**

it starts with a dream





더 멀리뛰기 위한 작은 한 걸음,

# 2019 SIHH

워치메이커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공개하는 국제고급시계박람회 SIHH는 올해도 어김없이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29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에는 수치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 브랜드가 참가했지만 반클리프 아펠이 빠졌고, 오레마 피계의 마지막 박람회 참가였으며 내년부터는 시기를 옮겨 바젤월드와 기간을 합친다는 소문이 도는 등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듯했다. 고객들이 기대하는 미학에 더 집중한 까르띠에, 기계식 파인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정의하는 기술적으로 훌륭한 모델을 선보인 바세로 콘스탄틴, 좀 더 합리적이고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몽블랑 등 새로운 기술력과 궁극의 예술 작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였던 그동안의 모습들과는 달리 브랜드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지는 움직임을 강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빠르게 달려온 시계 업계가 앞으로 더 길게 가기 위해 숨 고르기를 하는 해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을 듯. <스타일 조션일보>는 올해 세계 시계 시장을 선도할 주요 브랜드들의 새로운 시계 Best 3를 정리했다.

## 시간을 보여주는 새로운 생각 · Hermes ·

**이쓰 레흐 드 라른** 북반구와 남반구의 달을 두 개의 문 페이지에 동시에 보여주며 독특하게 시각을 표현하는, 기존의 컴플리케이션 시계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운석 또는 어벤추린 다이얼이 자개와 조화를 이뤄 우주와도 같은 느낌을 주고, 돌아가는 두 개의 서브 다이얼이 둥근 달 위에서 회전한다. 재미있게도 남쪽은 위로, 북쪽은 아래로 방위가 뒤바뀌어 있는데 이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간을 초월해 깊은 우주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화이트 골드 케이스의 지름은 42mm, 에르메스 매뉴팩처 무브먼트 H1837을 탑재했고 악어가죽 스트랩을 매치했다.

**겔름 데르메스** 마구 제조에서 시작한 에르메스의 역사를 디자인에 담았다. 숫자 8로 번신한 등자, 몽환적인 아치 형태, 6시 방향에 자리한 크라운의 독창적인 대담함이 눈에 띄는 시계. 상단부로 갈수록 늘어나고 작아지도록 원근감을 부여한 폰트는 디자이너 이니 아르키볼이 아카이브에 소장된 마구 컬렉션과 수많은 오브제들을 얼마나 깊게 관찰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스틸 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케이스 사이즈는 40.8x26mm, 송아지가죽 또는 악어가죽 스트랩을 매치할 수 있다.

**이쓰 아우** 2016년 엘리스 쉐리가 디자인한 꿈이 그려진

그르(Grrrr)에 이어 이번에는 늑대 시계 아우(Awooooo)를 선보였다. 다이얼 위로 한 마리의 늑대가 달빛 아래 은빛 찬란한 자태를 드러낸다. 정교한 에나멜 기법으로 그려진 이 장면은 초승달과 별들이 수놓인 짙은 밤하늘과 대비되며 실감나게 묘사되고 있다. 신화나 동화에 등장하며 매

혹적이지만 두렵기도 한 하얀 늑대는 에르메스 남성 스킵프 모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는데 장인의 섬세한 손길로 긴 시간 작업한 결과물. 케이스 지름 41mm, 매뉴팩처 무브먼트 H1837을 탑재했고 악어가죽 스트랩을 매치했다. 전 세계 8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다.



이쓰 레흐 드 라른 겔름 데르메스 이쓰 아우



## 기술과 예술의 균형과 조화 · Cartier ·

**또노 더블 타임존 스킵레톤** 2015년 크레쉬와 2017년 탱크 상트레 위치의 재탄생 이후, 매종의 전설적인 위치 컬렉션에 대한 재해석에 자신감을 얻은 까르띠에. 올해는 가장 진보된 워치메이킹 기술력에 까다롭게 완성한 디자인을 입혀 까르띠에 또는 위치를 선보였다. 기발한 셰이프, 총포 모양의 스크루 장식 등 매력적인 또노 위치의 더블 타임존 스킵레톤 모델은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놀라운 기술을 사용했다. 먼저 시계의 길쭉한 형태에 맞춰 모든 기어 트레인을 12시와 6시 사이에 정렬했고, 곡선형 케이스에 맞게 무브먼트도 살짝 휜 형태로 구조를 수정한 것. 이는 그야말로 기술과 예술 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 고유 번호가 부여된 1백 퍼스 리미티드 에디션은 핑크 골드 및 플래티넘 버전으로, 20퍼스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플래티넘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베누아 알롱제**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오브

## 클래식한 디자인 속 최고의 기술력 · IWC ·

**행력 투르비온 어린 왕자 에디션**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18K 특수 레드 골드 소재를 사용해 케이스를 제작했다. 이는 기존의 레드 골드 소재보다 5~10배 더 단단하며 블루 다이얼과 매력적인 대미를 이뤄 미적으로도 훌륭하다. 특히 받은 행력 메커니즘은 휠 트레인에서 이스케이프먼트로 동력이 직접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 고도의 정밀성을 보장한다. 자체 제작한 무브먼트 94805로 페페루얼 문 페이지 디스플레이를 움직이며 96시간 파워 리저브가 두 개의 배럴에 저장된다. 케이스 지름은 46.2mm, 달에서 있는 어린 왕자를 형상화한 장식이 돋보이는 10피스만 한정 제작한다.

**타임존 스팟파이어 더 롱기스트 플라이트 에디션** 두 명의 조종사 스티브 볼트비룩스와 매트 존스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시계로 배젤을 회전시켜 다른 타임존으로 간단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워 핸즈, 24시간 디스플레이와 날짜는 이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된다. 지름 46mm 스틸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과 그린 스트랩을 매치한 것은 조종석에 사용된 컬러에서 영감을 받은 것. 이 시계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무브먼트 82760은 6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2백50피스 한정 제작될 예정이다.

**더블 크로노그래프 탐건 세라타늄** IWC에서 개발하고 특허까지 보유한 신소재 세라타늄®은 티타늄과 세라믹의 장점이 결합된 신소재. 티타늄처럼 가볍고 견고한 것은 물론 세라믹처럼 단단하고 마모나 긁힘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푸시 버튼과 핀 버튼을 포함한 케이스의 모든 부품은 세라타늄®으로 제작되었는데 매트 블랙 컬러로 세련된 느낌까지 더했다. 더블 크로노그래프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스포츠 세컨즈 기능도 내장했다.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 79420이 동력을 공급하며 44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케이스 지름은 44mm, 블랙 텍스타일 안감의 러버 스트랩이 함께한다.

제는 까르띠에의 모든 컬렉션을 아우르는 영감이자, 베누아 위치를 탄생시킨 까르띠에 스타일의 핵심 요소. 1910년대의 전통적인 원형 시계에 실증을 느낀 루이 까르띠에가 육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베누아 컬렉션은 1950년대 말까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마침내 안쪽으로 살짝 휜 타원형에 로마 또는 아라비아숫자를 매치한 지금의 디자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중 베누아 알롱제는 베누아 위치를 오버사이저로 제작해 더욱 근사한 스타일을 완성한다. 1917 MC 매뉴얼 무브먼트를 탑재했고, 악어가죽 스트랩을 매치했다.

**산토스 뒤몽** 하늘을 정복하고 중력에 맞서 싸운 전설적인 모험가이자 비행사 알베르트 산토스 뒤몽의 진취적인 면모를 기억하게 하는 시계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스크루가 과감하게 외부로 드러난 사카 다이얼 등이 특징. 에펠탑의 네 모서리에서 볼 수 있듯 대칭과 간결함을 최고의 미학으로 생각했던 당시 파리에서 추구한 기하학적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올해는 기존 무브먼트의 두 배 효율에 달하는, 6년여간 연속 작동이 가능한 고효율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해 시계의 실용성을 높였다.



산토스 뒤몽 베누아 알롱제



이름에 내 의미 있는 작업을 하죠.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생각한다면,

**모든 컬렉션마다 매종의 차별화된 특성을 개발하고, 다양한 주제를 재해석하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까르띠에. 무궁무진한 창조성을 이끌어내는 매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 로제트르를 만났다.**

**01 까르띠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매종의 아이덴티티에 기대어 우아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식은 워치메이킹 분야에서는 매우 드문 세팅 방식이라 세팅 역시도 거의 주얼리에 가까운 완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누아 알롱제를 위해서는 아이리브에서 다양한 볼륨으로 출시되었던 지난 베누아 알롱제 모델들을 다시 살펴보고 연구한 끝에 스웨이 린던 시질의 모델을 최종 선택했죠. 디자인을 크게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롤링과 인체 공학적으로 더욱 개선된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글루드 파리 버전을 추가했습니다. 글루드 파리 모티브를 배젤 위에 이어 붙인 것이 아니라 글루드 위에 직접 해 놓는 구조인 것입니다.

**03 현재 까르띠에의 여성 워치 분야는 시장에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까르띠에 워치가 다른 브랜드의 워치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까? 다시 한 번 시크너를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까르띠에만의 특징 말입니다. 까르띠에 시계는 장인 정신, 품질 및 스타일 모든 측면에서 그 자체로 까르띠에만의 고유함을 지녀야 합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까르띠에만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까르띠에 스타일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품질과 장인 정신,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INTERVIEW

© Maude Remy-Lonvis



##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 Montblanc ·

**1858 지오스피어** 1920년대 및 1930년대의 전설적인 정통 미네르바 시계는 군사용이나 탐험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극한의 조건에서도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가독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 유서 깊은 타임피스에서 영감을 받은 몽블랑 1858 컬렉션은 올해 세 가지 에디션으로 선보였는데 그중 1858 지오스피어는 산악 탐험가들의 성배인 세계 7대 정상 챌린지에 바치는 헌사로 브론즈 케이스와 카키 그린 다이얼 그리고 이와 매치를 이루는 나토 스트랩으로 자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느낌을 자아낸다.

**헤리티지 GMT** 몽블랑 헤리티지 컬렉션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노하우와 빈티지 클래식 디자인 코드를 잘 반영한 시계. 지름

40mm의 유광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가 모던한데 케이스백에는 미네르바 매뉴팩처를 새겼다. 실버 화이트 돔 다이얼에 퍼핀체에 있는 리치몬드 펠레테리아 공방에서 제작한 그레이 스푸마토 앨라게이터 스킨 스트랩이나 스틸 메시 밀라니즈 브레이슬릿, 혹은 연어색 돔 다이얼에 그레이 스푸마토 앨라게이터 스킨 스트랩 등 세 가지 버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모델 모두 매치되는 컬러를 입힌 아라비아숫자, 도트 인덱스와 날렵하게 뻗은 핸즈, 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했다. 24시간 GMT 컴플리케이션 오토매틱 칼리버로 구동된다.

**스타 레거시 플 캘린더** 오토매틱 데이트와 같은 디자인 코드를 차용했으며 지름 42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사용했다. 오토매틱 칼리버 MB 29.12로 구동되는데 이는 시, 분, 초, 요일, 날짜, 월과 문 페이즈를 나타내는 기능을 품고 있다. 끝부분에 다이얼의 가장자리를 둘러싼 31개의 숫자를 따라 도는 작은 빨간 초승달 모양의 핸드로 날짜를 읽는다. 요일과 월은 다이얼 위쪽 창에 표시했고, 아랫부분은 문 페이즈를 보여준다.

## 대담한 디자인과 거듭되는 혁신 · Roger Dubuis ·

**엑스칼리버 원오프** 람보르기니의 모터스포츠 부서인 스포드라 코르세에서 독점 개발하고 최초로 선보인 하이퍼 카 SC18 알스톤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하이퍼 워치다. 람보르기니와의 파트너십으로 탄생한 로저드뷔의 세 번째 독점 칼리버 RD106SQ로 구동되는데 람보르기니 엔진의 V자 형태 대형 구조를 본떠 만든 90도 경사의 더블 플라잉 투르비용이 특징이다. 12시 방향에는 람보르기니의 엔진 회전 속도계에서 영감을 받은 더블 디스크를 장착해 점핑 이워 카운터와 하나의 분침으로 시간을 표시한다. 6시 방향에 장착된 기능 선택기 또한 슈퍼 카의 모드 선택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푸시 버튼을 이용해 와인딩(W) 모드 또는 시간 설정(S)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1963년부터 람보르기니를 위해 특별 맞춤 제작한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는 피렐리 L 타이어의 뛰어난 변형 및 견인 저항성을 스트랩에 적용해 스트랩의 품질도 크게 향상시켰다. 전 세계 딱 한 점만 생산된다.

**엑스칼리버 우라칸 퍼포먼트** 지름 45mm의 티타늄 케이스로 제작한 이 시계 역시 최첨단 성능과 획기적인 기술, 날렵하고 강렬한 미학 그리고 혁신적

인 로저드뷔의 비전을 담았다. 엑스칼리버 우라칸을 구동하는 RD630은 12도 경사의 밸런스 휠과 트윈 베럴을 적용해 더욱 강력하게 구동한다. 람보르기니 우라칸의 루버 공기 흡입구에 있는 특징적인 반육각 형태가 시계의 오픈 워크 다이얼을 통해 반복되며, 뒷면에 보이는 3백60도로 터는 바퀴 테두리 디자인을 차용해 시각적인 즐거움도 놓치지 않았다. 스트랩 안쪽 면에는 피렐리 패턴을 장식했고 람보르기니 차량 내부에 사용되는 그레이 알칸타라 소재로 인레이한 블랙 리버 스트랩 옐로 스티치 장식으로 경쾌함도 더했다. 전 세계 88개 한정 생산된다.

**엑스칼리버 슈팅 스타** 2년의 연구 개발 끝에 탄생한, 로저드뷔의 여성 시계다. 플라잉 투르비용을 탑재했고 지름 36mm의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화이트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와 컬러풀한 에나멜 소재의 슈팅 스타 장식을 더했다. 내부에 화이트 자개 다이얼을 적용한 핑크 모델과 세련된 블루 선버스트 장식을 더한 블루 모델 총 2종을 선보이는데 블루 모델은 케이스, 베젤, 러그까지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각 모델당 28점만 한정 생산한다.



엑스칼리버 우라칸 퍼포먼트



엑스칼리버 슈팅 스타

**CELEBRITY**

최고급 수공예 시계에 대한 관심은 셀러브리티도 움직이게 만든다. 비단 일장에도 스위스까지 날아와 관심 있는 시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 행사에 참여한 월드 스타들.

에거 르쿨트르와 친분을 과시한 아만다 사이프리트, 몽블랑의 앰버서더 유 잭맨, 피아제를 사랑하는 줄리아 팔레르모, IWC 부스를 방문한 이드리아나 라미.



## 특특 튀는 도발적인 컬러 · Richard Mille ·

**RM07-03 오토매틱 리치와 미리틸** 총 10가지 모델로 출시한 붐붐 컬렉션은 모델별로 30개만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기술력에 자신 있는 리차드 밀만이 도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워치메이킹 분야에 일반적인 통념이나 관습, 예상을 뒤엎고 달콤하고 발랄한 비전을 보여준다. 브랜드의 대표 모델인 RM07-03에 카본 TPT®와 쿼츠 TPT® 조

합으로 얻어진 다양한 색상의 케이스로 완성했으며 아크릴 페인트로 색감을 입히고 수작업으로 레커 처리했다. 사실적인 면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파우더 에나멜과 모래시계에 사용되는 매우 미세한 입자의 모래를 사용해 슈거 코팅 효과도 주었다. 사이즈는 45.3X32.3mm, 5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RM16-01 오토매틱 프레이즈와 시트론** 붐붐 컬렉션 프루트 라인의 6가지 모델 중 프레이즈와 시트론은 RM16-01을 기본으로 완성했다. RM16-01은 리차드 밀 타임피스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사각 형태 케이스 디자인의 매력에 그대로 유지했는데, 기존 RM16 케이스 디자인의 특징과 완벽한 디테일을 유지하는 동시에 통념이나 관습, 예상을 뒤엎고 달콤하고 발랄한 비전을 보여준다. 브랜드의 대표 모델인 RM07-03에 카본 TPT®와 쿼츠 TPT® 조

합으로 얻어진 다양한 색상의 케이스로 완성했으며 아크릴 페인트로 색감을 입히고 수작업으로 레커 처리했다. 사실적인 면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파우더 에나멜과 모래시계에 사용되는 매우 미세한 입자의 모래를 사용해 슈거 코팅 효과도 주었다. 사이즈는 45.3X32.3mm, 5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RM37-01 오토매틱 슈세프** 붐붐 컬렉션의 스위즈 라인 4개 모델 중 RM37-01 슈세프는 다양한 맛의 스펙트럼을 연출시키는 다채로운 컬러가 돋보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러한 스위즈들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맛을 타임피스를 통해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는 리차드 밀의 탁월한 에나멜 세공 기술 덕분에 가능한 것으로 부드러움, 바삭함, 폭신폭신함과 같은 감각이 연출되는 효과를 자아낸다. 12시 방향에 하얀색 스퀘어톤 디스크로 보이는 날짜창을 탑재했으며 푸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마치 자동차의 변속기처럼 와인딩(W), 시간 설정(H) 또는 중립 위치(N)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선택한 모드가 다이얼의 4시 방향에 표시된다. 크기는 52.6X34.4mm인 케이스는 헌터 그린 색상의 TZP 세라믹을 적용해 스크래치 저항도를 높이고 열전도 계수를 낮춰준다.



RM37-01 오토매틱 슈세프



RM16-01 오토매틱 프레이즈



## 정확한 시간 측정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 Jaeger LeCoultre ·

**마스터 그랑 트레디션 자이로투르비용 웨스트민스터 퍼페추얼** 일 상에서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루브룸 크기를 축소해 새롭게 디자인한 에거 르쿨트르의 다섯 번째 다축 투르비용을 탑재한 시계다. 게다가 런던 빅벤 시계탑의 차임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하며 무음 구간 단축 메커니즘을 탑재하고 있어 멜로디 리듬이 최적화된 웨스트민스터 카리용 미닛 리피터가 함께한다. 일정 시간 동안 동일한 힘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1분 컨스탄트 포스 메커니즘을 통해 정확한 점핑 미닛 핸즈가 가능한, 그야말로 독보적인 기계식 워치메이킹 기술을 고스란히 담은 시계다. 케이스 지름 43mm에 블루 기요세 에나멜 또는 실버 피니싱 및 그레이 처리한 다이얼을 매치했고 5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마스터 울트라 썬 투르비용 에나멜** 올해 마스터 울트라 썬 라인업 워치메이킹의 전문성을 상징하는 컴플리케이션, 즉 문 페이즈, 투르비용, 날짜, 그리고 퍼페추얼 캘린더를 탑재한 새로운 모델로 컬렉션을 더욱 풍성하게 확대했다.

하이트 골드와 미드나이트 블루 에나멜로 완성한 세 가지 디자인의 모델 중 마스터 울트라 썬 투르비용 에나멜은 지름 40mm 우아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 속에 유서 깊은 에거 르쿨트르 칼리버 978 무브먼트를 탑재했고 선레이 패턴으로 마감했다. 6시 방향에 자리한 투르비용이 끊임없이 회전하는 모습은 황홀하기까지 하다. 50피스 리미티드 시리즈로 출시된다.

**데즐링 랑데부 나잇&데이** 탁월한 여성미가 돋보이는 랑데부 컬렉션이 정밀함의 예술을 테마로 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 정교한 프롱 세팅부터 새로운 문 페이즈 디자인, 자개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다이얼에 에거 르쿨트르 898B 또는 925A를 탑재했다. 그중 화이트 골드와 핑크 골드 에 어울리는 블루 또는 토포 악어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데즐링 랑데부 나잇&데이는 지름 36mm 골드 케이스와 어우러진 다이아몬드 장식이 화려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상징적인 플라워 모티브 핸즈가 우아하게 움직이며 6시 창에는 발이 빛나는 하늘에 낮과 밤 인디케이터가 자리한다.



데즐링 랑데부 나잇&데이

마스터 울트라 썬 투르비용 에나멜



**전문 다이버 워치 브랜드의 정체성 강화 · Panerai ·**

**섭머저를 마리나 밀리타레 카보테크 에디션** 이탈리아 해군 특공대와 브랜드의 파트너십을 상기시키는 에디션. 33개 한정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데 이 시계를 손에 넣게 되는 행운의 주인공에게는 이탈리아 해군 및 특공대 대원들과 함께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 케이스 지름 47mm, 단방향 회전 베젤 그리고 와인딩 크라운 보호 장치는 티타늄보다 가볍고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강도가 높은 카보테크로 제작했다. 핸즈와 아워 마커, 회전 베젤에 적용된 수퍼-루미노바®로 어둠 속에서도 가독성이 좋으며 스쿠버다이빙에 최적화된 견고한 러버 스트랩도 장착했다. 파넬라이 매뉴팩처에서 개발 및 제작한 P.9010 오토매틱 칼리버로 구동되며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섭머저를 마이크혼 에디션** 마이크 혼은 모든 장애틀을 뛰어넘어 탐험을 완수하는 자유롭고 모험적인 인물. 수십 년간 모험을 통해 지구가 처한 위엄을 직시하고 보호에 앞장선 영웅이기도 하다. 오직 19피스만 한정 제작하는 이 시

계를 손에 넣는 모든 이들은 마이크 혼과 함께 수일간 북극의 유빙을 직접 체험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연의 도전에 맞서는 것은 물론 인류로 인해 야기되는 생태계의 위협을 깊이 새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재활용 PBT에서 추출한 소재로 제작한 블루 스트랩 및 다이얼과 회전 베젤에 사용된 야광 물질 등의 디테일로 다른 시계와 차별화했다. 케이스 지름 47mm, 7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섭머저를 크로노 기움 네리 에디션** 역시 딱 15개만 제작하는 스페셜 에디션으로 이 시계를 갖게 되는 이는 기움 네리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무레아에 초대되어 특별한 경험을 즐기게 된다. 세계 챔피언이자 해양 세계의 전설인 기움 네리와 함께 깊은 바다에서 고래를 만나는 등 다이빙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 이 시계는 프로페셔널 다이빙 워치로, 수심 약 300m 방수 기능을 제공하며 잠수 시간을 측정하는 블랙 세라믹 디스크를 적용한 단방향 회전 베젤을 장착했다. 화이트 야광 마커를 통해 다이얼은 완전한 어둠 속은 물론 어떠한 조명 조건에서도 탁월한 가독성을 제공한다. 타임피스에는 러버 스트랩을 장착했으며 스크류 백에는 기움 네리의 서명과 놀라운 프리 다이빙 기록이 인그레이빙되어 있다. 충격과 스크래치에 강한 DLC 코팅으로 처리한 케이스는 지름 47mm,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P. 9100 오토매틱 칼리버를 탑재했다.



섭머저를 마이크혼 에디션

섭머저를 크로노 기움 네리 에디션

**최고의 워치메이킹 전통을 잇는 · Vacheron Constantin ·**

**트래디셔널 트윈 비트 퍼페추얼 캘린더** 2백64년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바세론 콘스탄틴은 착용자의 필요에 따라 두 개의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는 시계를 선보였다. 착용하고 있을 때는 시간, 분, 일, 월, 윤년 및 파워 리저브를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을 통해 읽을 수 있으며, 현대인의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높은 진동수로 진동한다. 미착용 상태일 때는 최소 65일로 연장된 파워 리저브로 타임 키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칼리버 3610의 진동수가 줄어든다. 메인 스프링이 가변적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한 최초의 시계로서, 기계적 파인 워치메이킹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오버시즈 투르비옹** 브랜드의 주요 테마인 여행과 세상을 향한 열린 시각을 담고 있는 오버시즈 컬렉션. 올해는 이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투르비옹 모델을 선보였다. 지름 42.5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역동적이면서 조화로운 블루 다이얼을 매치해 품격 있고 강인한 매력도 담았다. 작년 처음 선보인 울트라 썬 칼리버 2160을 장착했는데 1백88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고 두께가 5.65mm에 불과하다. 별도의 도구 없이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스틸 브레이슬릿과 가죽 스트랩, 러버 스트랩을 함께 제공한다. **캐비노티에 머제스틱 타이거** 18세기 제네바에 사는 명망 있는 장인들이 건물 맨 위층, 빛이 잘 들어오는 공방에서 워치메이킹과 관련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했다. 캐비노티에로 알려진 이곳 장인들은 학식을 갖춘 것은 물론 과학과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타임피스를 제작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바세론 콘스탄틴의 캐비노티에 아틀리에에는 매공이 고객에게 제안하거나 특별히 의뢰받아 단 하나뿐인 특별한 시



캐비노티에 머제스틱 타이거



트래디셔널 트윈 비트 퍼페추얼 캘린더

오버시즈 투르비옹



알티플라노 투르비옹

**전통이 빛어낸 품격 · Piaget ·**

**알티플라노 투르비옹** 올해 피아제는 메종의 상징적인 전문 기술이 돋보이는 세 가지의 새로운 알티플라노 타임피스를 선보였다. 그중 가장 시선을 끄는 건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블루 컬러 윤석 다이얼이 돋보이는 지름 41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의 알티플라노 투르비옹 모델. 알티플라노를 상징하는 8시 방향 배터닝 핸즈와 인덱스가 시간과 분을 알려주고, 춤을 추듯 유연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2시 방향 플라잉 투르비옹이 어두운 밤하늘에서 회전하는 행성의 움직임을 떠오르게 하는 시적인 시계다. 28350rpm 한정 제작되는 알티플라노 투르비옹 41mm는 피아제 메종이 지닌

핵심 전문 기술인 보석 세팅, 스톤 장식 다이얼, 그리고 울트라-씬 워치메이킹 등 피아제의 탁월한 기술을 응집했다. **포제션** 작년 피아제 포제션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컬러로 교체 가능한 스트랩과 브레이슬릿뿐만 아니라 라피스트라줄리, 카닐리언, 터퀴즈와 말라카이트 등 최고급 오퍼먼트 스톤으로 만든 다이얼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좀 더 젊은 층을 공략했다. 올해는 여기에 매력적인 체리 빛감을 사용한 4가지 버전을 추가했다. 그중 데일리 워치로도 훌륭한 지름 29mm의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모델은 회전식 베젤과 다이아몬드 인덱스가 돋보인다. 좀 더 화려한 이브닝 워치를 찾는다면 메종이 보유한 최고급 주얼리 세팅 노하우를 집약한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모델도 선택할 수 있다. **폴로** 스포티한 캐주얼 워치 폴로는 올해 세련된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베젤에 직사각형과 라운드 형태를 접목했고 케이스는 더욱 크게 하는 등 밀레니엄 세대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건 지름 42mm 스틸 케이스에 표면을 비추는 빛의 각도에 따라 색

**뛰어난 기술력과 압도적인 디자인 · Audemars Piguet ·**

간 파워 리저브를 지원한다. 케이스 지름은 41mm. **코드 11.59 퍼페추얼 캘린더**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사금석 다이얼, 블루 악어가죽 스트랩의 조화가 아름다운 모델이다. 컬렉션의 상징인 22K 골드 소재의 오픈워크 로터가 있는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칼리버 5134로 구동된다. 퍼페추얼 캘린더는 긴 달과 짧은 달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윤년마다 2월을 29일까지 표시한다. 영구적으로 착용할 경우, 2천1백 년에 한 번 조정이 필요하다. 우수한 천문학적 시계답게 이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은 어두운 블루 컬러 사금석 다이얼과 별이 빛나는 하늘을 연상시키는 서브 다이얼이 특징. 6시 방향에 문 페이지, 3시와 9시 방향에 날짜와 요일 표시 디스플레이가 창을 더해 미적인 아름다움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케이스 지름은 41mm, 수심 20m 방수가 가능하다. **에디터 장외운**



포제션

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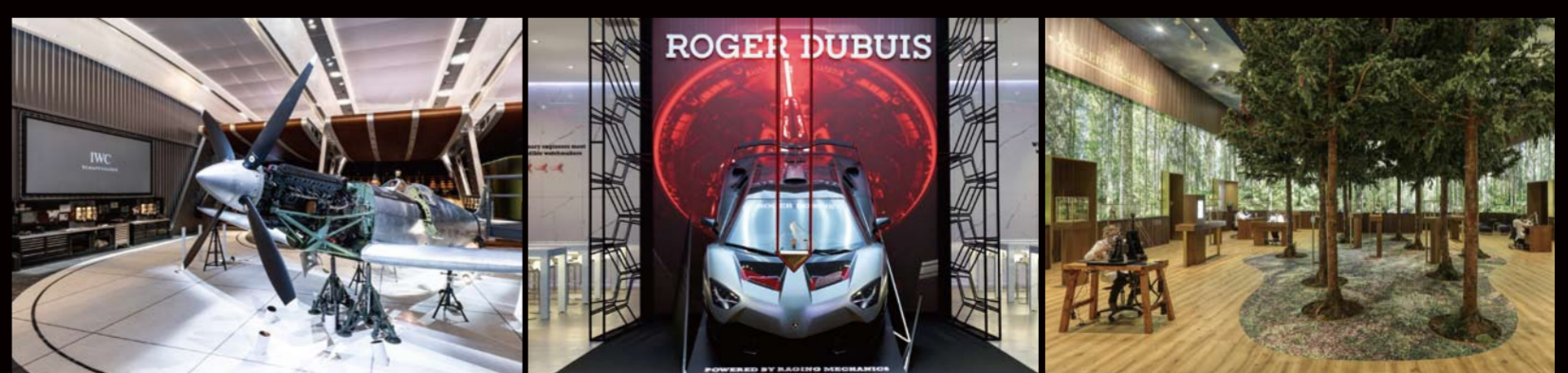
채와 강도가 변하는 그린 기요세 다이얼 버전, 톤온톤 효과를 이끌어내는 다크 그린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바쁜 일상에 오아시스를 보는 기분을 만끽하게 한다. 전 세계 오직 5백 피스만 한정 제작할 예정이며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이상적인 피아제 자체 제작 1110P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동된다.



코드 11.59 미닛 리피터 수퍼소네리

코드 11.59 퍼페추얼 캘린더

코드 11.59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놀라운 신기술과 화려한 디자인의 시계 못지않게 다양한 콘셉트로 완성된 부스도 관련 포인트. 퍼일링 워치 선보인 IWC는 비행기 내부처럼 꾸민 부스에 실제 세계 일주를 시뮬레이션 비행기를 전시했고, 로저드뷔는 람보르기니와의 끈끈한 협업을 증명하듯 10여대가 출격 넘는 슈퍼 카를 전시했다. 예거 르쿨트르는 매뉴팩처가 있는 스위스 빌레 드 주의 숲을 옮겨와 잠시나마 힐링 시간을 선사했고, 라트르 밀은 먹고 싶은 디저트들로 공간을 채워 동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외에 갤러리에 들어서면 울퉁 울퉁한 주시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전시한 에르메스와 예술적인 디스플레이를 선보인 까르띠에도 눈에 띄었다.

EXHIBITION

# New Spring, New Looks

프레시한 매력으로 무장한 2019 S/S 뉴 룩 컬렉션.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왼쪽부터 순서대로) 화이트 옐로 컬러 플러드 플리츠 드레스, 실버 드롭 아이링 모두 가격 미정 **자황시**, 화이트 재킷, 레이스 셔츠,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화이트 레이스 핏프스 가격 미정 **자미 후**, 주얼 후프 아이링 63만원 **아틀리에 스킨오브스키**, 블랙 퍼디탈 드레스 6백16만원 **발렌티노**, 옐로 범론 소매 레이스 드레스, 블랙 벨트, 블랙 버클 장식 힐, 볼드한 아이링 모두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옐리 컬러 원 숄더 드레스, 볼드한 아이링 모두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블루 플리츠 드레스, 실버 아이링 모두 가격 미정 **자황시**, 블루 힐 가격 미정 **스튜어트 와이츠먼**, 레드 레더 플리츠 드레스 9백86만원, 레드 벨트 가격 미정 모두 **발렌티노**, 골드 파이론 샌들 힐 가격 미정 **자간비토 로시**, 골드 아이링 2백90만원 **타겔로**.



블랙 재킷, 도트 패턴  
튜블 스킨 드레스,  
블랙 앵글부츠 모두 가격 미정  
**셀린노 바이 에디 슬리먼**.



(왼쪽) 카키 베스트, 팬츠,  
블랙 보디수트, 도트 패턴 시스루  
핀프스 모두 가격 미정 **다음**.  
(오른쪽) 네이비 재킷, 패턴 팬츠, 블랙  
스트랩 샌들 모두 가격 미정 **다음**.



(왼쪽) 레더 코트, 그레이 나트 스웨터,  
화이트 셔츠, 그린 실크 톱, 스카트,  
샬러 핏프스 모두 가격 미정 **다음**.  
(오른쪽) 네이비 패턴 코트, 옐로 실크 스카트,  
레드 핏프스 모두 가격 미정 **다음**.



플라워 자수 드레스  
1천2백10만원, 스킨 컬러 톱  
83만원, 쇼츠 63만원 모두 **바버리**.  
골드 아이링 1백36만원 **타넬로**.



(왼쪽) 체크 실크 셔츠 2백35만원,  
스카프 장식 베이지 팬츠 1백58만원,  
베이지 앵글 힐가죽 미장 모두 **바버리**.  
(가운데) 블루 울 니트 2백35만원, 브라운  
레더 스카트 3백69만원, 블랙 스트랩  
펌프스 가죽 미장, 골드 아이링 33만3천원  
모두 **바버리**. (오른쪽) 피스타치오 컬러  
플리츠 드레스 4백15만원, 체인 벨트 백  
1백89만원, 브라운 레이스 업 힐가죽 미장,  
골드 아이링 33만3천원 모두 **바버리**.



(왼쪽) 베이지 스웨이드 드레스  
7백57만5천원, 블랙 니트 톱  
1백55만원, 블랙 펌프스 91만5천원  
모두 **보태가 베네타**, (가운데) 블랙 니트 톱  
가격 미정, 레더 스커트 4백42만원,  
화이트 스니커즈 99만5천원  
모두 **보태가 베네타**, (오른쪽) 베이지  
트렌치코트 1천88만원, 블랙 톱  
1백55만원, 블랙 팬츠 98만원, 블랙  
펌프스 91만5천원 모두 **보태가 베네타**.

(왼쪽) 체크 재킷 3백90만원,  
오렌지 셔츠 1백41만원, 네이비 스커트  
2백50만원, 체인 벨트 가격 미정  
모두 **구찌**, 블랙 주얼 장식 펌프스  
2백50만원 **대 로저 비비에**,  
(오른쪽) 화이트 재킷 가격 미정,  
스카트 가격 미정, 더블 G 디테일의  
실버 펌프스 1백63만원, 골드 크리스털  
장식 아이링 82만원 모두 **구찌**.

헤어 김승원  
메이크업 김도현  
모델 타야나 블스토이, 신현이, 김수빈,  
엘리스, 권자아, 김명진, 현지은  
어시스턴트 김현민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구찌 1577-1921  
지원시 02-6370-4099  
알렉산더 맥퀸 02-6905-3793  
지미 추 02-3443-9469  
아들라에 스와로브스키 1522-9065  
빌렌타노 02-2015-4653  
쥘세베 자노티 02-543-1937  
스튜디오 와이츠먼 02-3449-5903  
지안버토 로시 02-6905-3690  
타셀로 02-3449-4114  
셀린느 바이 에디 슬리먼 02-6905-3481  
디올 02-513-0300  
프라다 02-3442-1830  
켄디 02-2056-9023  
버버리 080-700-8800  
보태가 베네타 02-3438-7682  
로저 비비에 02-6905-3370



**Elegant Tuxedo**

남성 에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안정적인 스타일링을 대중적으로 가장 즐겨 입는 블랙 턱시도. 넓은한 세틴 라벨의 턱시도 재킷, 허리와 옆선에 세틴 트로핑을 넣은 트라우저, 훌륭하게 플라즈를 잡은 핑 컬러 턱시도 셔츠를 매치하고 보타이로 마무리한 스타일.

올 시즌 턱시도 재킷과 트라우저 세트 1백90만원대, 화이트 턱시도 셔츠 23만원대 모두 **브룩스 브라더스**, 모노그램 프린트 보타이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카프 리더 포일 슈즈 50만원대 **보스 맨**.



**3-Piece Suit**

동일한 소재의 재킷, 베스트, 팬츠를 모두 갖춘 스타일링 슈트 혹은 준에펙의 상격을 만나, 지니-카게 포용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카비엔 경쾌한 패턴의 셔츠나 타이 등을 함께 매치하면 한층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올 시즌의 젊은 그레이 컬러 스타일링 슈트로는 재킷 75만원, 베스트 30만원, 팬츠 35만원, 중간중간 어긋난 디테일로 재미를 준 스트라이프 셔츠 21만원대, 하운즈투스 체크 패턴 타이 15만원대 모두 **보스 맨**. 빈티지한 느낌이 맛스러운 레터링 디테일 레이스업 슈즈 2백49만원 **벨루티**.



*be a Gentleman*

특별한 날 혹은 일상생활에서 보다 완벽한 룩을 연출하고 싶은 당신에게 제안하는 스페셜 슈트 스타일링 가이드 4.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스타일링은 유행을 앞서는 아티스트의 역할이다.

**Seperated Suit**

격식을 차리는 에펙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통의 세퍼레이트 슈트와 달리 온전한 디테일의 차이를 살린 세련된 스타일. 광택이 흐르는 패턴 재킷에 기본 디자인의 트라우저를 매치해 룩의 밸런스를 맞추고, 상하의 모두 톤을 달리한 블랙 컬러로 연출했다.

턱시도 라벨로 정중한 느낌을 강조한 싱글브레스트 재킷 4백2만원대, 블랙 이브닝 트라우저 90만원, 블루 체크 패턴 셔츠 59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너**, 컬러풀한 기하학 문양이 맛스러운 타이 18만원대 **보스 맨**, 블랙 페이턴트 슈즈 1백90만원대 **루이 비통**.



**Patterned Suit**

전통적인 에펙에서 벗어나 개성과 취향을 강조한 스타일링 재킷, 도트, 스퀘어 등 다채로운 모양과 크기의 패턴 아이템을 믹스했다.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만큼 차분한 색상을 톤오트로 연출하는 편이 좋다.

은은한 체크무늬가 맛스러운 슈트 3백만원대, 블루 삼바라이 셔츠 40만원대, 도트 패턴 타이 23만원, 포인트로 연출한 포켓 스퀘어 19만원 모두 **까날리**, 뒷축의 리본 디테일과 두툼한 솔로 캐주얼 무드를 더한 레이스업 슈즈 60만원대 **보스 맨**. **에디터 이혜미**

**보스 맨** 02-515-4088  
**벨루티** 02-547-1885  
**까날리** 02-3438-6275  
**브룩스 브라더스** 02-2052-8822  
**에르메네집도 제너** 02-3213-2413  
**루이 비통** 02-3432-1854



*my sweetest Time*



**RM07-03 AUTOMATIC LITCHI**

스켈레톤 인하우스 무브먼트 CRMA2를 탑재해 시·분을 표시하는 시계 문양의 기능에 집중했다. 티타늄 소재의 베이스 플레이트와 브리지로 견고함을 살렸고 정교한 피니싱으로 기어 트레인이 원할하게 작동하도록 했다. 또한 착용자의 활동량에 맞춰 메인 스프링의 와인딩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가변 지오메트리 로터를 적용했는데, 이는 RM37-01, RM16-01 역시 마찬가지. 카본 TPT®와 화이트 퀴츠 TPT®를 조합한 45.32x32.3x11.93mm 크기의 케이스와 레드 러버 스트랩의 조화가 멋스럽다. 5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한다.

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거침없는 행보로 놀라움을 선사하는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리처드 밀이 정의하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은 어떤 모습일까?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시계, 봉봉(Bonbon) 컬렉션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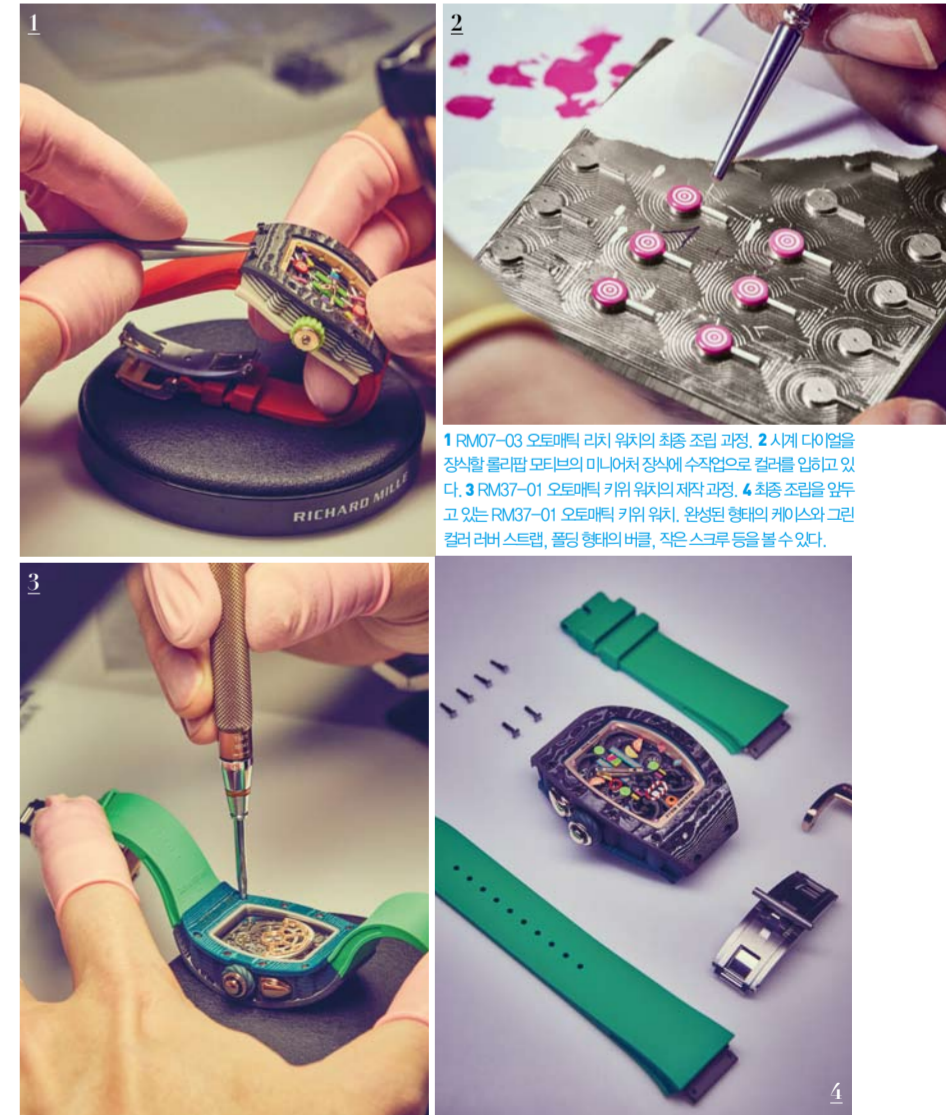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이를 뒷받침하는 워치메이킹 기술이 어우러져 탄생하는 리처드 밀의 시계는 이들에게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의 문명을 품게 만든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SIHH 2019에서 공개한 봉봉 컬렉션은 업계에 전례 없던 캔디, 페이스트리, 프루트 등을 콘셉트로 한 독특 튀는 얼굴의 시계. 달콤한 컵케이크, 젤라토, 마시멜로, 롤리팝 등 어린 시절 즐겨 먹던 디저트 모양 장식을 케이스, 다이얼, 스트랩 곳곳에 더했다. 컬렉션을 구성하는 총 10가지의 타임피스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 RM07-03, RM16-01, RM37-01의 배리에이션으로 케이스, 무브먼트 등 기존 시계의 커다란 틀과 기능은 유지했다. "색상을 자유롭게 활용해 컬렉션을 재해석하고 싶었어요. 자연스럽게 팝 아트에서 영감을 얻은 요소들을 끌어내게 됐죠. 이번 유니섹스 컬렉션을 위해 총 60개의 컬러 팔레트를 만들었습니다." 아티스틱 디렉터 세실 게너의 설명처럼 봉봉 컬렉션은 그래픽, 감성, 색채가 어우러진 팝 아트의 영역까지 넘나드는 특별한 타임피스다. 컬렉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캔디, 케이크 등 달콤한 디저트로 장식한 스위츠 라인의 네 가지 모델, 그리고 싱그러움 향과 맛을 지닌 과일 캔디에서 영감을 받은 프루트 라인의 여섯 가지 모델. 우선 스위츠 라인은 다채로운 맛의 스펙트럼을 연상시키는 컬러풀한 투톤의 세라믹 케이스가 인상적으로 그랑피 에나멜 또는 블랙 크롬 처리한 티타늄 다이얼을 장착했다. 그리고 인텍스 대신 정교한 에나멜링 또는 스탬핑 기법으로 만든 작은 스위츠 장식을 더했는데,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식감이 연상될 만큼 정교한 모양새가 눈에 띈다. 한편 프루트 라인은 카본 TPT®와 퀴츠 TPT®를 조합한 다양한 컬러 케이스를 갖췄고, 이번 컬렉션을 통해 터키이즈 컬러까지 새롭게 선보인다.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스켈레톤 구조의 베이스 플레이트 위를 장식한 젤리, 롤리팝, 캔디 미니어처. 아크릴 페인트와 래커 처리한 생동감 넘치는 컬러가 압권이다. 이뿐만 아니라 파우더 에나멜과 모래시계에 사용하는 매우 미세한 입자의 모래를 이용해 실랑 가루를 입힌 듯한 '슈거 코팅' 효과까지 연출했다는 사실! 이처럼 소재와 텍스처의 과학을 타임피스에 적용한 리처드 밀 봉봉 컬렉션은 잠시 잊고 지냈던 행복한 추억을 되돌려주는 동시에 워치메이킹 세계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특별한 시계다. **에디터 이혜미**



**RM37-01 AUTOMATIC KIWI**

시·분·날짜 표시 기능을 갖춘 스켈레톤 인하우스 무브먼트 CRMA1으로 구동한다. 크라운 기능으로 인한 무브먼트의 손상을 차단하기 위해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별도의 푸시 버튼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마치 자동차의 변속기처럼 와인딩(W), 중립(N), 시간 설정(S) 모드 선택이 가능하며 이는 다이얼 내시 방향에 일파벳으로 표시된다. 탄소 섬유 수백 장을 쌓아 올린 뒤 압축해 생긴 고유 밀도 물질 카본 TPT® 케이스를 장착했고 크기는 52.6x34.4x13.8mm로 카위를 연상시키는 그린 러버 스트랩이 감각적이다. 5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 sponsored by RICHARD MILLE



1 RM07-03 오토매틱 리치 워치의 최종 조립 과정. 2 시계 다이얼을 장식할 롤리팝 도트 등의 미니어처 장식에 수작업으로 컬러를 입히고 있다. 3 RM37-01 오토매틱 카위 워치의 제작 과정. 4 최종 조립을 앞두고 있는 RM37-01 오토매틱 카위 워치. 완성된 향상의 케이스와 그린 컬러 러버 스트랩, 풀딩 형태의 버클, 작은 스크류 등을 볼 수 있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황금 압출취 엑스트라 크림** 2인어 중의 장미를 조형하고 탁월한 활력, 생기, 적응력을 지닌 특별한 장미를 골라냈다. 이렇게 압출한 림프 장미의 줄기세포를 추출해 만든 크림. 건강한 피부의 가장 기본인 활력과 탄력을 되찾아준다. 50ml 55만원대. 문의 080-001-9500

**데코르테 AQ 밀리오리티 인텐시브 크림**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피부의 항상성을 집중 연구해 탄생한 크림이다. 진주 알 크립탈을 넣어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퍼뜨리고 손바닥을 이용해 골아몰라독 아사르해주면 더 효과적이다. 45g 1백58만원. 문의 080-568-3111

**샤넬 수블라미지 엑스트라 드 크림** 바누아 플라-니올리아의 주요 성분을 추출하고 배양해 세련되고 특별한 활성 성분을 만들어냈다.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해 생기와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이 활성 성분 덕분에 피부 재생과 회복, 탄력과 보습 기능이 빠르게 작용하고 눈에 띄게 개선된다. 50ml 65만7천원. 문의 080-332-2700

**라프래리 셀루라 크림 플레타일 레어** 1은스를 얻기 위해 10톤의 광석이 필요하다는 귀한 플레타일은 피부가 가지고 있는 전자적 균형을 유지해 보습 및 보호, 영양소 흡수 능력 등을 증가시켜준다. 클렌징과 토닝 후 얼굴과 목, 데콜테에 부드럽게 펴 바르면 된다. 50ml 1백56만6천원. 문의 02-511-6626

**사슬리 수프리아** 미국의 안티에이징 나이트 스킨케어로 생물학, 유전학, 피부 생리학의 최신 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제품이다. 세포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자연적인 재생 활동을 활성화해 저항력을 증가시켜준다. 낮 시간 동안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보호하기 위해 소진되는 피부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것. 50ml 80만원. 문의 080-549-0216

**아르마니 크레마 네라 수프릴 라비빙 크림** 단 한 방울의 물만 있으면 탁월한 환경에서도 되살아나는 기적의 부활초 레비센탈리스의 강력한 재생 능력에 집중했다. 그 활성 성분을 담아 피부 노화의 흔적을 지우고 탄력 넘치는 건강한 피부로 바꿔주는 크림. 50ml 49만원대. 문의 080-022-3332

**겔랑 오가드 임페리얼 블랙 크림**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진귀한 꽃 오가드. 그중에서도 궁극의 안티에이징 효과를 주는 블랙 오가드 성분을 담은 크림이다. 풍부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비해 리트한 느낌으로 발려 더욱 매력적.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마사지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들어 있다. 50ml 1백75만원. 문의 080-343-9500 **에디터 장미윤**



# haute Cream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다는 궁극의 럭셔리 크림. 최상의 원료와 최고의 기술력을 담아 선보이는 매력적인 인생 크림 7.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for ageless Beauty

피부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싶다면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크레마 네라를 주목할 것. 피부의 불로장생을 위해 강한 생명력을 지닌 불로초의 효능을 담았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가 지난 2월 29일과 3월 1일 이틀에 걸쳐 프리미엄 스킨케어 크레마 네라의 레노베이션을 소개하는 자리를 상해에서 가졌다. 크레마 네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몇 방울만의 물로 다시 살아나는 강인한 식물, 부활초의 신비한 능력을 담은 안티에이징 라인이다. 크레마 네라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아끼는 이탈리아의 판텔레리아 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판텔레리아 섬은 기온이 0℃에서 60℃를 넘나들고 최대 6개월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가 지속되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이곳에서도 식물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생명력이 강한 식물에서 영감을 받아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의 안티에이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아르마니 연구소는 오랜 연구 끝에 세계적인 부활초 연구자인 쥘 페른 박사의 도움으로 죽은 듯 바삭 말라 있다가도 한 방울의 물만으로 12시간 안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초의 힘을 담은 레비센탈리스™ 성분을 찾아냈다. 1년에 단 한 번 부활초의 유효 성분이 가장 뛰어난 건기에 아르마니만의 특별한 4단계 수성 증류 기법으로 고효능 레비센탈리스™ 성분을 추출한다. 레비센탈리스™에는 비타민 C보다 20배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갈락신분 아니라 트레할로스라고 하는 슈퍼 슈거가 함유되어 피부의 자정 작용을 도와주고, 활성산소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준다.

중국 상해 민항구에 위치한 프라이빗 리조트 아만양윤(Amanyangyun)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크레마 네라의 강인한 생명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부활초 연구를 함께한 쥘 페른 박사가 참석해 크레마 네라의 핵심 성분인 레비센탈리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 연구소의 마테오 케시어와 로레알 중국 연구소 지미 창도 참석해 크레마 네라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아시아 여성의 피부 특징과 그에 따른 관리법, 스킨케어 트렌드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크레마 네라의 전 제품을 사용한 스페셜 스킨 케어 체험이었다. 물보다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를 촉촉하고 투명하게 해주는 '이쿠아 판텔레리아 워터 에센스',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를 보호하고 생기와 탄력을 부여하는 '퍼밍 플럼핑 에센스', 그리고 복숭아 커널 오일을 더해 단단하고 리치한 제형으로 안티에이징 효과를 극대화한 '수프릴 라비빙 크림', 4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으로 자외선 차단 기능과 더불어 탄력을 선사하는 'UV 모이스처라이저'를 통해 흘러간 피부 시간을 되돌려주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으니. 고풍스럽고 우아한 공간에서 받는 스킨케어는 마치 중국의 황제가 된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28일 저녁 진행된 갈라 디너에는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 코스트라미(@costrama), 중국 배우 야오 퉁(Yao Tong), 일리마(Yili Ma)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피아니스트 마에 우(Muye Wu)의 감미로운 축하 공연은 행사의 품격을 높여주었다. 문의 02-3497-9406



1 웅장함과 품격이 느껴지는 갈라 디너 전경. 2, 3 크레마 네라의 레노베이션 행사가 중국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지닌 아만양윤 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4 4월 출시 예정인 크레마 네라 라인의 신제품 UV 모이스처라이저. 5 토털 안티에이징 크레마 네라 수프릴 라비빙 크림. 6 크레마 네라의 주성분인 부활초.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 Oil obsession

피부를 오염시키고 건조하게 만드는 미세 먼지와 번덕스러운 봄 날씨에 꼭 필요하다. 탁월한 보습력 덕분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페이스 오일이 한 단계 더 진화했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앤 워터 순세대로 아홉 테라리스 페이스 오일** 무엇보다 빨리 흡수되어 사용 후 매끄러운 무광 피부를 완성해주는 페이스 오일. 수분 보충에 좋으며 꽃향기가 느껴져 기분도 상쾌하다. 25ml 7만5천원. 문의 1800-1987

**시슬리 블랙 로즈 프리시스 페이스 오일** 오메가 3와 오메가 6가 풍부한 시슬리의 혁신 성분 카멜라나 오일을 함유했다. 실크처럼 부드럽고 끈적이지 않아 아침 스킨케어에도 부담이 없다. 25ml 23만원. 문의 080-549-0216

**블리 1803 쉘 베레캅 오일** 식물 본연의 생리 효능이 유지되도록 씨앗, 과일, 꽃, 줄기 등에서 화학물질을 잘라내지 않은 생채반 방법으로 딱 한 번만 오일을 추출한다. 민감하고 트러블이 잦은 피부에 적합한 라즈베리 시드 오일. 50ml 13만7천원. 문의 02-511-3439

**결함 오이드 알베라임 오일** 엄선한 20가지 진귀한 식물성 오일과 오이드를 블렌딩했다. 피부 진피 조직의 탄력을 강화해주고 영양을 공급해 피부의 노화 증후를 감소시킨다. 매일 아침저녁 세럼 전 단계에 얼굴을 비벼해 목, 헤어, 데콜레 라인에 마사주해두면 좋다. 30ml 43만원. 문의 080-343-9500

**샤넬 힐 드 자스민** 샤넬만의 특별한 원료인 그리스 자원의 자스민 추출물을 함유했다.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고 영양을 공급해 강화시켜주며 편안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50ml 20만8천원. 문의 080-332-2700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리카바리 오일** 밤사이 리페어 세럼의 효과를 피부 속에 가두어 피부를 개선하고 생기를 부여해준다. 피부 강화 활성 성분인 자들을 혼합한 오일로 영양이 풍부하고 발림도 가벼워 매일 밤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면 좋다. 30ml 10만5천원. 문의 02-3440-2772

**디올 프라스티지 라 마이르 힐 드 로즈** 음식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소에 영양을 받아 탄생했다. 20여 가지가 넘는 마이르 뉴트리엔트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해주는 데 세럼의 신뜻함과 오일의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50ml 38만5천원. 문의 02-3480-0104

**달랑 카모마일 아로마틱 에센셜 오일** 엘릭시르 오가닉 아로마틱 로마인 캐비어질, 샌달우드, 라벤더 에센셜 오일과 비사볼을 성분을 블렌딩했다. 쉽게 붉어지고 트러블이 잘 생기는 민감성 피부를 위한 아로마틱 에센셜 오일로 숙면에 도움이 되도록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향도 첨가했다. 15ml 7만2천원. 문의 02-3440-2706 에디터 장미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것보다 더 편안한 피부를 느끼게 해주는 AQ 래디언트 글로우 리프팅 리퀴드 파운데이션 SPF 20 / PA++ 30ml 13만원 데코르테

# the sparkle Effect

2019년 뷰티 트렌드는 민낫인 듯 아닌 듯한 자연스럽고 깨끗한 피부 표현. AQ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해 고가의 기초 제품으로 케어받은 듯한 광채 리프팅 효과를 주는 데코르테 파운데이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작년에는 얼굴 윤곽을 강조해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살려주는 킨투어링 메이크업이 인기를 끌며 입체적인 피부 표현이 트렌드였다면 올해는 마치 본인의 피부인 듯 얇고 투명한 질감의 베이스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런 매일수룩 가장 중요한 건 푸석푸석한 피부와 울퉁불퉁한 요철, 다크서클 등을 커버할 수 있는 쉐도우 파운데이션 하나. 데코르테 AQ는 Absolute Quality의 약자로 최고의 품질이 최상의 미를 창조한다는 철학을 담은 럭셔리 스킨케어 라인이다. 기존 AQ 스킨케어 라인이 지켜왔던 귀한 성분과 풍부한 향 그리고 세련된 패키지는 세 가지 키워드를 그대로 이어받아 AQ 베이스 메이크업 라인을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AQ 래디언트 글로우 리프팅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크리미한 텍스처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커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 좋은 피부처럼 자연

스러운 혈색을 표현하는 데도 탁월하다. 무엇보다도 스킨케어의 명가 데코르테의 고성능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부드럽게 반짝이는 피부 광채와 리프팅한 듯 매끈하고 탄력 있어 보이는 효과까지 줘 무한한 신뢰가 간다. 그야말로 화장을 하면 할수록 피부가 좋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좀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얻고 싶다면 끌어올리듯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바르며 효과가 극대화된다. 총 여섯 가지 셰이드로 출시해 본인의 피부 톤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억지스럽지 않으면서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균일하고 건강한 피부 표현은 물론 하루 종일 편안한 느낌으로 광채로 리프팅한 듯 살아나는 피부를 연출해주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잘 고른 파운데이션 하나 열 컨실러 안 부럽다는 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문의 080-568-3111 에디터 장미윤

#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크림〉가 추천하는 봄날을 담은 향기와 컬러의 뷰티 신제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체앤가바나 물체 피오니 오 드 퍼퓸** 봄의 여왕으로 불리는 자외의 향기와 이탈리안 특유의 공정 에너지가 느껴지는 향수다. 개성 강하고 독특한 향기는 은은하고 밝은 느낌의 향을 좋아하는 여성에게 추천하면 좋을 듯. 로맨틱한 보틀 디자인과 은은한 보랏빛 컬러도 시선을 끈다. 50ml 11만1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장리운

**디티크 캔들 듀오 세트 나르갈레 X 리스** 요즘 두 가지 캔들을 빼어놓는 것에 빠져 있던 중 디티크의 캔들 듀오 세트를 만났다. 타버로 잎과 여러 향신료를 더한 강렬한 나르갈레와 촉촉한 알샤이 청초한 향이 가득한 리스. 오일엔탈 느낌 물씬 풍기는 이는 숲에 있어 있는 가뭄이탈까 라 매종 베베르 프레외의 협업으로 탄생한 상자 또한 감각적이라 선물용으로 훌륭하다. 190g×2 15만4천원. 문의 02-3479-6049\_by 에디터 장리운

**샤넬 루주 코코 플라워** 마지 촉촉한 립밤을 바르고 그 위에 립스틱을 바른 느낌. 강렬하고 선명한 립 컬러에 샤넬 향까지 더해준 미묘사, 호화분, 해바라기 등 자연 유래 화소를 함유해 바르는 즉시 최대 8시간 보습 효과를 선사한다. 60버트 네 온 오렌지 컬러 3g 4만4천원. 문의 080-332-2700\_by 에디터 장리운

**아샤 퍼펙트 UV 선크림 스킨케어 밀크** 선크림 제품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부에 가볍게 스며들어 화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샤의 밀크 타입 선크림은 우유처럼 맑고 흰 재형으로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톡톡 두드리며 흡수시키면 산뜻하게 마무리된다.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도 뛰어나다. 60ml 3216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이혜미

**실론 페이스타이트 2.0** 피부 탄력에 효과적이라 바이올라 고주파 에너지, 피부 톤 개선을 위한 LED 레드 라이트, 그리고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진피층까지 침투하도록 돕는 열에너지를 결합한 홈 케어 디바이스. 10시간 57가지 원하는 에너지 레벨을 선택할 수 있고 휴대도 간편해 매일 5~15분씩 꾸준히 사용하면 눈에 띄는 피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5만원. 문의 080-246-1234\_by 에디터 이혜미

**글레드보 보메 레디안트 크림 투 파우더 퍼온데이션** 촉촉한 크림으로 시잔해 보습한 파우더로 마무리하는 듯한 텍스처감을 느낄 수 있는 마법 같은 퍼온데이션.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밀링한 에어 스프리로 교체된 퍼온데이션을 쓸수록 바르면 원하는 만큼 가볍고 얇은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카바레도 훌륭한 편. 12g 12만1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이혜미

**자형시 펄 꾸뛰르 에버웨어 컨실러** 나이 들수록 기운을 볼 때마다 드르스름과 이마 주름에 자꾸 시선이 머문다. 이럴 땐 전체적으로 톤업해주는 퍼온데이션보다 컨실러가 (필수 화장을 안 하는) 에디터에게는 더 효과적. 부분 압박이 지지 않게 여러 번 톡톡 두드려 가볍게 피 필라야 하지만 한 번 바르고 나면 촉촉하게 오래 지속된다. 피부가 약간 붉은 톤이라면 #10호와 #12호를 추천한다. 6ml 4만7천원. 문의 080-801-9500\_by 에디터 장리운

**이슬 데오도란트** 데오도란트는 체취를 가리기 위한 만큼 향이 좋아야 하고, 피부에 직접 분사하므로 성분 또한 중요하다. 열한 가지 보타. 립 오일로 이루어진 에인 한 파우더도 자극이 없고 인위적이지 않은 산뜻한 자연의 향이 특징이다. 손바닥만 한 크기와 가벼운 패키지에 담아 휴대도 간편하고 분사 후 빠르게 마르는 것도 장점. 50ml 3219천원. 문의 080-1987\_by 에디터 이혜미

**조르조 아라바니 아이즈 투 릴리 케어 아이타이너** 수분된 기술이 없다면 어떤 메이크업도 갖출 화장품은 사용하지가 중요하다. 이 제품은 적당한 두께에 탄력성이 있는 링 타입을 달아 메이크업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발색이 진하고 지속력이 오래가는 하이 카본 딥 블랙 컬러로 선명한 눈매를 만들어준다. 1.4ml 424천원.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이혜미

**포달리 비노 퍼펙트 나이트 크림** 나이트 크림은 좀 꾸뛰르덕하고 무거워야 바른 것 같고 자는 동안 피부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줄 것 같은 편이 있었다. 그런데 이 크림은 가벼운 크림 텍스처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환하고 밝아진 느낌을 준다. 바타민 C보다 무려 6배 높은 브로마틴스 효과를 지닌 비노. 페린 성분은 밤새 피부에 침투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디 스폿을 방지해주기 때문이라고. 50ml 5만9천원. 문의 02-6011-0212\_by 에디터 장리운

**리프라이 스킨 케어 리프트 리프트** 미세 마사지 기운을 부리면서 기본적으로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한 스킨케어에 더 관심이 많았다. 케어 제품들이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 손상을 예방하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이 제품은 재형이 쉽고 산뜻하고 가벼워 아침 세안 후 바르기 좋다. 여름에도 애용할 듯. 50ml 71만2천원. 문의 02-511-6626\_by 에디터 장리운

**구피 플로라 바이 꾸피 오 드 퍼퓸** 꾸피의 아이코닉한 플로라 에디션이 더 교육적인 향으로 리뉴얼됐다. 세 가지 라우얼 중 가장 깊고 농축된 향이 특징인 오 드 퍼퓸은 낮보다 밤에, 젊은 여성보다는 성숙한 여성에게 더 잘 어울린다. 톤 노트로 만년, 오렌지, 베르가모트 등을 더했고 은은한 플로럴 향기가 오래도록 지속된다. 75ml 1621천원. 문의 080-950-0708\_by 에디터 이혜미

**랑콤 2019 스프링 컬렉션 가베 보테르 아이 팔레트** 펄스 루즈, 파스텔 핑크 등 부담 없는 패턴 컬러의 색도를 얇게 퍼올려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특별한 약속이 있을 때면 은은한 글러시 색도 포인트를 주기도. 이 모든 나즈를 한 번에 충족시킬 제품은 총 10가지 컬러로 구성된 랑콤의 스프링 컬렉션 아이 팔레트. 패키지가 정말 사랑스럽다. 8만9천원.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이혜미



# SHOWROOM

## JEWEL&WATCH



### BEAUTY



**랑콤 암쉬루 마드모아젤 샤인** 선명한 터치감과 촉촉함을 동시에 갖춘 립스틱을 추천한다. 로즈 오일을 함유해 부드럽게 발리면서 입술에 편안함을 선사한다. 기존 블랙 케이스와 달리 로즈 골드 케이스는 발랄함을 더한다. 은은한 플로럴 & 과일 향이 매력적인 이 제품은 157지 컬러로 출시된다. 문의 080-001-9500



**리처드 밀 RM07-02**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블루 사파이어 케이스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계. 다이얼은 머더오브월 소재를, 스텔레톤 무브먼트는 별도 가공 처리한 그레이 골드 소재를 사용했다. 문의 02-2230-1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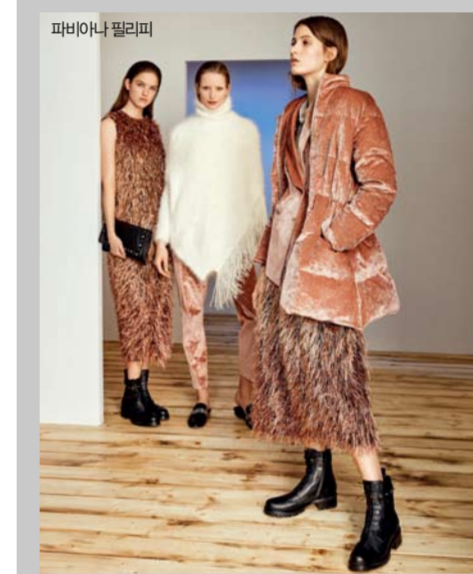
**반클리프 아펠 비트윈 더 핑거 링** 매종을 상징하는 정교한 나비 모티브의 비트윈 더 핑거 링을 추천한다. 미드나이트 블루 컬러의 라피드라줄리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소재의 화려한 대비가 돋보인다. 문의 00798-852-16123

**리샤드 밀** RM07-02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블루 사파이어 케이스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계. 다이얼은 머더오브월 소재를, 스텔레톤 무브먼트는 별도 가공 처리한 그레이 골드 소재를 사용했다. 문의 02-2230-1288

**반클리프 아펠** 비트윈 더 핑거 링 매종을 상징하는 정교한 나비 모티브의 비트윈 더 핑거 링을 추천한다. 미드나이트 블루 컬러의 라피드라줄리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소재의 화려한 대비가 돋보인다. 문의 00798-852-16123

**티파니 T 트루 화이트 링** 아이코닉한 알파벳 T 모티프를 채인 형태로 교체해 그래픽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티파니 T 트루 화이트 링을 소개한다. 다이아몬드의 단면을 형상화한 듯한 입체적인 피니싱이 특징으로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 3가지 소재로 출시된다. 문의 02-547-9488

### FASHION



파비아나 필라피



브리오니



브루넬로 쿠차렐리



**아들리에 에르메스 정지현 개인전** 입체감 있는 설치 작업으로 입자를 다져낸 조각 장려한 아들리에 에르메스의 2019년 첫 전시, 개인전 (다목적 핸들)을 선보인다. 제목에 등장하는 핸들은 영국 출신의 현대 조각가로 도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헨리 무어 작품의 조각들에 대한 감정에 집중했다. 도시 구석 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파편들을 수집, 해체, 재조합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문의 02-3015-3248

**브리오니 2019 S/S 컬렉션**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아우터부터 롱과 팬츠까지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아이템으로 다채롭게 구성된 브리오니의 2019 S/S 컬렉션을 소개한다. 코튼, 실크, 오카자 등 다양한 패브릭에 인체 공학적인 섬세한 데일링을 더했다. 화이트 리넨 턱시도, 실크 소재 데님 팬츠, 누벅 소재 블루투스 등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274-6483

**토즈 더블 T 버킷백** 더블 T 모고 형태의 컬러와 알파벳 T 모양 스티치 패턴이 돋보이는 가방. 버킷 형태로 가볍고 실용적이며 대체로운 컬러와 크기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6008

**브루넬로 쿠차렐리 실크 스포티 재킷** 편안한 핏이 멋스러우며 가벼운 코튼과 실크 소재로 실용성까지 더해졌다. 드로스트링 디테일과 지퍼 덕분에 장식된 모날리 디테일이 경쾌한 느낌을 준다. 전국 부루 터 전국 데크로테 백화점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80-568-3111

**이세이 미야케 맨 2019 F/W 파리 컬렉션** 2019 F/W 파리 패션 위크에서 'Feeling the Wind' 콘셉트의 쇼룸에서 2019 F/W 컬렉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컬렉션은 80년대 영화 속 대도시를 배경으로, 초차려 도시를 운전하는 여성에게서 영감을 얻었다. 메탈릭한 디테일과 다양한 소재의 믹스 매치, 현대적인 테일러링과 레이아웃이 특징이다. 문의 02-6905-3626

이세이 미야케



Zip Antique Ludo necklace  
transformable into a bracelet,  
rubies and diamonds.

#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